Entertainmen p/18

'최장수 아이돌' 신화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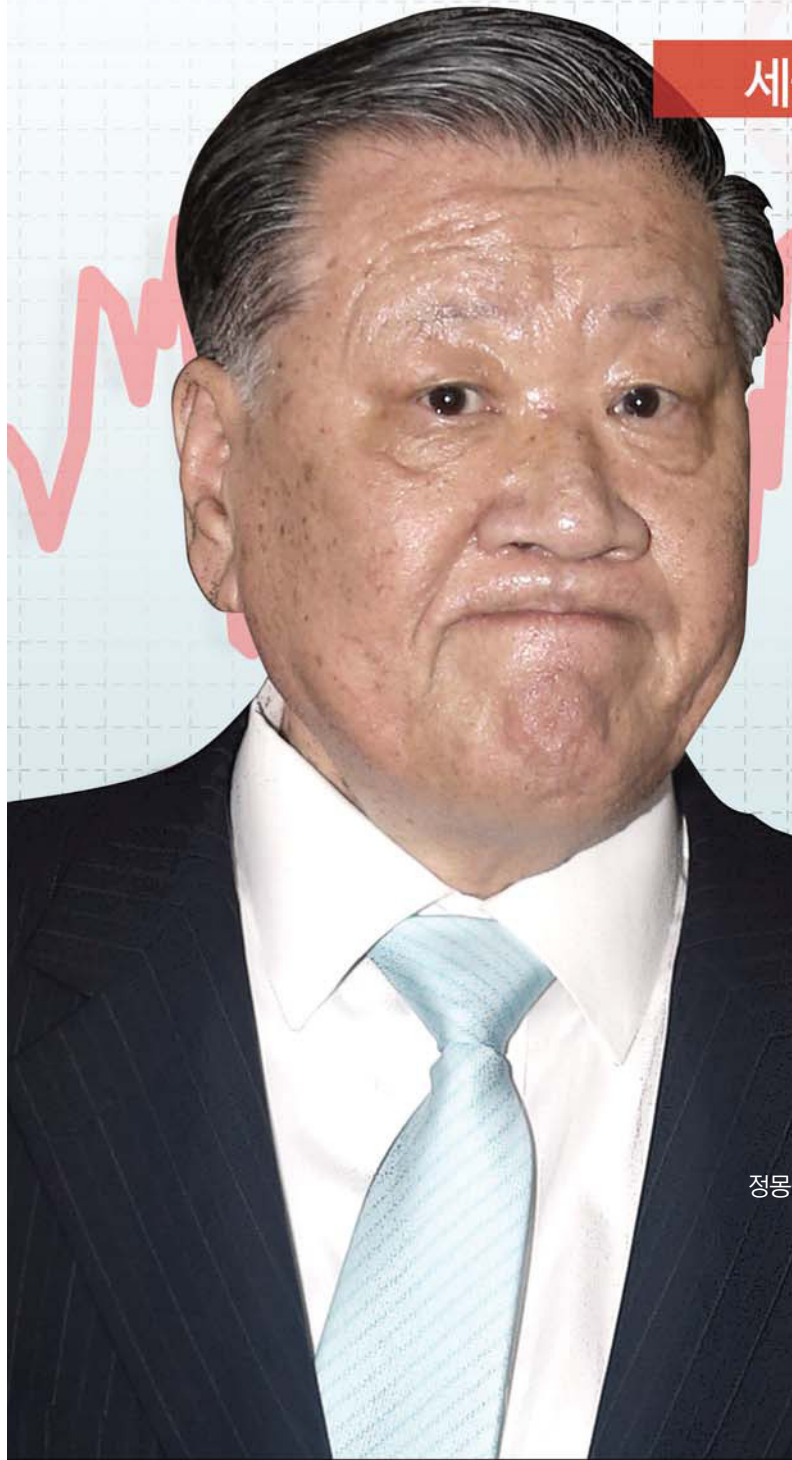
metro®
메트로 2015년 2월 11일 수요일 제3155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0

지소연 FIFA 발롱도르 기대

내가 뭘 잘못한겨?

세습재벌 문제없나 ◆ 경영능력 - 현대차그룹 p/8

현대차 주가 자사주매입 등에도 끝없는 추락
한전부지 10조 매입 후폭풍… 시장 신뢰 상실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조선명탐정 : 사라진 놉의 딸' 이연희 p/17

"김영란법 기자들도 당해봐라" 이완구, 언론외압 논란 확산 p/2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누가 책임져야 하나” “朴 대통령 책임져야”

원세훈 판결 후폭풍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대선 댓글사건'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의 후폭풍이 거세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압박하고 나섰다. 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는 2012년 대선 닷새 전에 당시 박 후보자의 말씀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며 “‘민주당(새정치연합 전신)은 자신들의 (국정원의 대선 개입)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오늘 안으로 경찰에 제출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밝혀진다면 문제인 후보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이제 사실심의 최종단계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판명이 났다”며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할 것인지 우리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한발 더 나아가 “박 대통령, 당신의 대통령직은 유효하냐”고 물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은 선거 때 본인이 아닌 사람이라도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며 “박 대통령 역시 본인이 직접 선거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대통령은 전 국민을 상대로 국정원의 댓글공작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죄’는 당선무효형 언도받는다”며 “국정원의 불법 대선, 부정 선거가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 국민들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송병형기자

한·미 연합 해상침투훈련 10일 강화도 하일리 해안에서 열린 한·미 해병대 연합 해상침투훈련에서 장병들이 상륙 기습 고무보트(IBS)를 이용해 상륙해안으로 기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이버전, 군사작전 격상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판결 다음날인 10일 대선 댓글의 한 축인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작전을 군사작전으로 격상하는 조치가 발표됐다. 앞으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작전은 합동참모의장(4성 장군으로 군서열 1위)이 관할하게 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군사이버사령부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참의장은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작전을 지도·감독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합동작전을 위한 시뮬레이션 등 업무를 수행하는 분석실험실을 합동참모본부 특별참모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의 '합동참모본부 직제령' 개정안도 회의를 통과했다.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모든 업무는 국방부 장관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이들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합참의장도 사이버작전에 대해 조정·통제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이버작전이 사실상 군사작전의 범주로 격상되게 됐다.

정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가 국방 사이버전에서 사이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윤아기자 yoona1@

‘이완구 녹취록’ 추가폭로

“언론인, 총장·교수 시켜줬다 김영란법, 기자도 당해봐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언론을 회유·협박한 내용을 담은 녹취록이 인사청문회 첫날 추가로 공개됐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갖가지 의혹에 대한 해명을 시도했지만 ‘결정적’ 의혹인 비뚤어진 언론관에 발목이 잡혀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0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정회한 가운데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이 후보자가 일부 취재기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언론을 회유하고 협박한 내용이 담겼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기자들에게 “나도 대변인하면서 지금까지 산전수전 다 겪고 살았지만 지금도 너희 선배들 나하고 진짜 형제처럼 산다”며 “언론인들, 내가 대학 총장도 만들어주고...내 친구도 대학 만든 놈들 있으니까 교수도 만들어주고 총장도 만들어주고...”라고 말했다.

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내가 지금 막고 있잖아...내 가만히 있으려고 해...당해봐”라며 “지금까지 내가 공개적으로 막아줬는데 이제 안 막아줘. 이것들(기자들) 웃기는 놈들 아니여 이거…지들 아마 검경에 불려 다니면 막 소리지를 거야”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당초 공직자에서 언론인과 교원으로 확대됐다. 이 후보자는 여당 원내대표 시절 언론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언론인에 대한 적용을 반대한 바 있다.

이날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녹취록에 담긴 내용을 언급하며 청문회장에서 녹취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해 청문회가 잠시 정회됐다.

이 후보자는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 오전 청문회에서 “제가 기자분들과 그런 얘기 했을 리 있겠나. 개인적으로 (녹취를) 들어봤으면 한다”며 부인하다가 오후 들어서는 “당시 1시간 30분 동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녹음파일) 보도가 나간 이후 3일째 수면을 취하지 못해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라고 말을 바꿨다.

한편 이보다 앞서 이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방송 보도를 막고 “기자들(자신)도 모르게 (기자생명이) 죽을 수 있다”고 말한 일부 내용이 공개돼 파문을 부른 바 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여야 정치개혁 특위 구성 합의

내달 3일 본회의서 처리… 특별감찰관 추천안도 함께

여야가 정치개혁논의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여야는 10일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정치개혁의 일환인 선거구 재획정 문제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리를 감찰할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 역시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정례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는 여야 동수로 20인으로 구성하되 선거구재획정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 의원은 특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여야 이견으로 표류해 온 특별감찰관 후보자(3명) 추천의 경우 여야 각각 한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야당이 제안한 범국민조세개혁특위 설치는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세월호특별조사위가 원만히 가동될 수 있도록 여야가 촉구하기로 했다.

야당이 주장한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는 여당이 수용하지 않아 계속 논의키로 했다.

이어 여야는 영유아보육법을 비롯해 여야가 각각 규정하는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노력한다는 데 동의했다. /정윤아기자 yoona1@

“美 레이더, 北 주택 내부투시”

북한이 10일 미국의 개인주택 감시 문제를 지적하며 인권문제로 북을 압박하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인권공세를 반박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미국이 또 하나의 반인권범죄를 저질렀다”며 “몇년 전부터 비밀리에 개인주택들에 대한 레이더 감시를 진행해온 것”고 주장했다.

중앙통신은 “미 연방수사국을 비롯한 미국 내 50여개 안전기관들은 그 어떤 승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레인지-R(Range-R)이라고 하는 레이더 감시체계로 개인주택들의 내부를 투시해 사람들의 움직임을 속속들이 감시해왔다”고 말했다. /정윤아기자

"증세 없는 복지, 말한 적 없다"

朴 대통령 발언 소동… 원유철 "유승민 원내대표 말이 더 정확" 전언 번복

"나는 한번도 '증세 없는 복지'라고 직접 말한 적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나왔다는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의 사실 여부를 두고 10일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나는 한번도 '증세 없는 복지'라고 직접 말한 적은 없다. 일단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우니까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경제를 살려서 그로 인해 생겨나는 여러 혜택을 갖고 복지쪽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하셨다"며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우니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게 대통령 말씀"이라며 "선(先)경제활성화, 후(後)세금논의로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가 되면,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득이 복지가 필요한 곳에 스며들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며 "구체적으로는 추후 당정청에서 계속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될 조짐을 보이자 청와대 회동자리에 함께 했던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와 정례회동을 갖기 직전 기자들에게 "제가 들은 바로 박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워딩한 적이 없다"며 "그 부분을 바로잡고 싶어서 말한다"고 부인했다.

원 의장은 유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같이 있던 유 원내대표의 말이 더 정확한 것 같다"며 앞서 자신의 전언을 번복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야당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합니까"라고 묻자 "그래서 제가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답한 바 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0일 '샐러리맨들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증세복지론에 대해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한 발언을 두고 "우선 증세를 해서 배신이고, 부자감세라는 형태로 대기업에 가해졌던 법인세 특혜를 바로잡고 정상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가난한 봉급쟁이 지갑 터는 방식으로 증세를 해 (국민이) 더 분노한 것 아닌가"라며 "이중의 배신 아닌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작년 세수 10조9000억 부족 '사상 최대'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행사에서 총세입·총세출부 마감 버튼을 누르고 있다. 세입세출 마감결과 지난해 국세수입은 205조5000억원으로 예산 보다 10조9000억원이 부족했다. 이같은 결손 규모는 IMF 구제금융을 받던 시절이나 금융위기 때 보다도 3~4배 많은 수준으로 사상 최대다. /연합뉴스

'한강상류 기름유출' 軍은폐 의혹

육군 모 부대가 지난 5일 강원 화천 북한강 상류에서 발생한 기름 대량 유출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름유출 피해 축소와 위험물질에 대한 관리허술까지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0일 해당 부대와 화천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9시쯤 북한강 수변에서 약 400m 떨어진 부대 내 난방용 기름탱크에서 경유 4890ℓ가 유출돼 군 당국이 6일째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이날 사고는 부대 난방용 유류 보관 탱크 밸브 부식으로 고장 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름 유출 시에는 신속히 유관기관에 신고를 하는 등 권장하는 방법을 통해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제거해야 한다. 하지만 군 부대는 사고발생 12시간이 지난 다음날 오전 9시41분쯤 화천군 환경관리과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은폐하려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욱이 당초 기름 유출량을 1000ℓ 적은 4000여 ℓ로 축소해 신고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부대는 유류탱크의 시설을 매년 점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위험물질에 대한 관리 허술이 드러나기도 했다.

부대 관계자는 "유출사고가 발생하자 환경관리 부대가 긴급투입돼 흡착포를 설치하고 중장비를 동원해 집유정 주변의 토양을 걷어내는 등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늦장 신고와 관련해서는 "이미 공무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라 다음날 신고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부대는 화천군 취수장 1km여 반경에 있다. 수도권 식수원의 젖줄인 북한강 수변과 불과 수십m 떨어진 곳에 있어 수질오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윤아기자 yoona1@

"대학 기성회비·분양가 정보 비공개는 위법"

권익위 "공공기관 정보공개 거부당하면 행정심판 청구"

대학이 기성회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란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대학 기성회가 진행 중인 재판을 이유로 기성회비 집행내역 정보공개를 거부한 일과 관련해 "기성회비를 납부한 학생이라면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대학교가 법률상 원인 없이 기성회비를 징수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 내지 판단을 구하는 재판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법인의 경영과 영업상 비밀에 관한사항이라며 분양원가심사위원회 서류 공개를 거부한 데 대해서도 "주택법에서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가 공시제도를 뒀다고 해서 주택의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항목 중 공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항목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택지비 등을 포함한 분양가격이 정상적으로 산출됐다면 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개를 결정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100원 동전의 제조원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화폐 납품단가는 한국은행과 한국조폐공사간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으로서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공개 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 관련 주요 재결례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송병형기자 bhsong@

KFX사업, 입찰 재공고

방위사업청은 10일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입찰을 재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 재공고는 전날 KFX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대한항공이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아 유찰된 데 따른 것이다. KFX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 공고 기간이 마감되는 이달 24일 입찰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입찰에서는 대한항공과 에어버스D&S가 KFX 개발 사업에 공동 참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차기 전투기(FX) 사업자인 미국 록히드마틴과 협력관계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의 경합이 예상된다.

/정윤아기자

딴 곳 바라보는 두 정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우크라이나 분리주의 반군을 지원하는 러시아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방어용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처음 밝힌 것에 대해 메르켈 총리는 "군사적 해법을 모색하지 않는다"고 재차 확인했다. /AFP 연합뉴스

美 명품시장 '나홀로 호황'

경제 호황에 백만장자 급증… 뉴욕 매출 일본보다 커

명품시장도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급성장세를 보이던 중국·러시아 등의 명품시장이 경기침체로 주춤거리는 반면 미국은 '나홀로 성장세'인 경제력에 힘입어 명품시장에서의 영향력도 크게 늘리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미국 명품시장 규모가 733억 달러(약 80조3002억 원)에 달했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일본(204억 달러), 이탈리아(182억 달러), 프랑스(173억 달러), 중국(169억 달러) 등 2~5위 국가의 시장규모를 더한 것보다 많다.

영국(151억 달러), 독일(117억 달러) 등이 6, 7위를 기록했고 한국은 103억 달러(약 11조2837억원)로 8위를 차지했다.

전 세계 주요 명품업체들도 그간 공을 들여왔던 유럽, 중국, 러시아, 한국보다는 미국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세계적인 명품업체 그룹인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의 지난해 아시아 시장 매출은 6% 감소한 반면에 미국 시장은 무려 8%나 성장했다. 유럽시장의 매출은 3% 늘어나는데 그쳤다.

◆중국 명품 소비 8년만에 감소

이처럼 미국 명품시장이 급성장한 것은 각국 경제가 부진한 속에 유독 미국 경제만 나홀로 잘나간 덕분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은 정보기술(IT), 에너지, 주식시장 등이 호황을 보이며 백만장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2013년 중반 이후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가 미국에선 160만 명이 새로 늘어났다. 반면 중국은 9만 명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특히 중국 정부가 벌이고 있는 반(反) 부패 정책의 영향까지 겹쳐 중국의 사치품 소비는 8년 만에 처음으로 1% 감소했다.

이에 따라 세계 명품업체들은 미국내 주요 도시에 대형 매장을 앞다퉈 새로 열고 있다.

프랑스 명품업체인 에르메스는 댈러스, 마이애미, 보스턴, 시애틀, 휴스턴에서 매장을 확장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에도 새 매장을 열 계획이다.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미국의 명품 시장은 전년보다 5% 증가하는 '나홀로 성장'을 기록했다"며 "특히 뉴욕의 명품시장 규모는 무려 255억 달러로 일본 전체를 앞지를 정도"라고 전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수익 위해 고객 불편쯤은…

항공사 좌석 폭 줄이기 열풍

수익극대화에 혈안이 된 미국 항공사들이 좌석 폭을 줄이는 '꼼수'까지도 동원해 빈축을 사고 있다.

항공 월간지 에비에이션위크는 유나이티드항공이 최근 장거리 노선 보잉 777-200기 이코노미석 좌석을 1열당 9석에서 10석으로 늘려 배치키로 했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유럽과 중동을 오가는 노선의 이코노미석 좌석 등받이 폭은 기존 18인치(45.7㎝)에서 17인치(43.2㎝)로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대신 전체 좌석 수는 최대 100석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앞서 아메리칸항공도 국내선 이코노미석 1열 좌석 수를 9석에서 10석으로 늘려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사들이 수익 증가를 위해 좌석 등받이 폭까지 줄이면 비만 인구가 많은 미국에서 승객 간, 승객-항공사 간 분쟁이 증가할 것이라고 에비에이션위크는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좌석 등받이 사용 문제를 놓고 승객간 다툼으로 아메리칸·델타·유나이티드항공이 비상착륙을 하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기도 했다.

/이국명기자 kmlee@

동성결혼 허가는 판사 마음? 미국 연방대법원이 9일(현지시간)부터 앨라배마 주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했지만 로이 무어 앨라배마주 대법원장이 허가서 발급 금지를 지시해 극심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날 매디슨 카운티 법원에서는 엘리너 슈와 제시카 화이트 커플이 결혼허가서를 들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고 모건카운티 법원에서 동성결혼 허가서 발급을 거부당한 캐스린 모건이 실망한 표정을 짓고 있다.

/AP 연합뉴스

부부싸움으로 교통 마비

metro HongKong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여성이 도로에 뛰어들어 도심이 마비되는 일이 발생했다.

9일 메트로 홍콩에 따르면 최근 광시성 라이빈시의 교차로에서 한 여성이 차량 보닛 위에 올라가 난동을 부렸다. 남편이 내연녀와 차에 탑승했다고 의심한 것이다.

자동차 안에는 그녀의 남편과 여성 두명이 타고 있었다. 아내는 삼륜차를 타고 남편의 승용차를 쫓아갔다. 승용차가 신호에 걸려 멈추자 이 여성은 잽싸게 삼륜차에서 내려 남편 자동차 보닛위로 올라가 전면 창문을 두드리며 욕을 하기 시작했다. 안에 있던 여성 두 명은 그녀를 발견하고 바로 하차해 자리를 피했다.

부인은 전면 창을 두드리다 손을 뻗어 운전자 옆 창으로 손을 넣어 남편을 공격했다. 이어 남편도 내려 부인과 서로 욕을 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경찰은 CCTV를 확인하고 운전자를 찾아내 사건의 전말을 들었다. 운전자였던 남편은 "친구들과 물건을 사러 가는 것을 아내가 외도 행위로 오해해 벌어진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격렬한 부부싸움 때문에 광시성 일대는 한동안 큰 교통 체증을 겪었다. /정리=장윤희기자

老婆爬車頭大罵

尷尬 廣西來賓市一名中年婦，因懷疑丈夫有外遇，上月29日駕三輪車，尾隨駕駛越野車、正搭載兩名女子的丈夫。當丈夫的越野車停在路口等候轉綠燈時，妻子也尾隨而至，立即下車爬上越野車的車頭蓋，狂拍車廂擋風玻璃，指着車內丈夫及女乘客一頓謾罵。兩名女乘客嚇得下車離開，夫妻兩人互相指摘。M

아베 '꼼수' 통했나

IS 인질 사태 후 지지율 50%대 재진입

IS 일본인 인질 참수 사건 이후 아베(사진) 총리의 지지율이 50%대를 회복했다. IS 문제로 일본 국내 이슈가 묻힌데다 인질 구출을 위한 국제 공조 모습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10일 NHK가 지난 6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9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지난달 대비 4% 포인트 상승한 54%로 나타났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지난달 대비 3% 포인트 줄어든 29%였다.

인질 사태에 대한 아베 내각의 대응을 어떻게 보느냐는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51%가 긍정적 답변인 '매우 평가한다'(11%) 또는 '어느 정도 평가한다'(40%)라고 답했다. IS사건 이후 아베 총리가 '테러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중동 지역에 인도적 지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것도 응답자의 65%가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IS 사건 자위권 확대 명분되나

한편 아베 총리는 IS 인질 사건을 정치적 야망의 발판으로 삼을 태세다. '싸울 수 있는 일본'을 내세우며 집단자위권 확충 계략도 드러냈다.

12일 시정 연설을 앞둔 아베 총리는 테러와 싸울 뜻을 천명할 계획이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일본인 인질 살해와 관련해 IS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테러를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시정연설에 대거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아베 총리는 일본 자위대가 다국적군을 후방지원하는 구상을 함께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희기자 unique@

“금융사 종합검사 2017년까지 폐지”

진웅섭 금감원장 “검사·제재 관행 쇄신”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신뢰, 역동성, 자율과 창의 등 3개의 키워드를 ‘금융감독의 3대 기조’로 삼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지 않으면서 엄정한 금융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검사와 제재 관행을 쇄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구현하기 위해 금융사 경영 간여 최소화, 관행적인 종합검사 폐지 등이 담긴 5대 부문, 25개 과제, 60개 세부과제를 실천하겠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사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검사와 감독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잦은 검사는 그동안 금융사를 괴롭혀온 관행이었다.

금감원 측은 “앞으로 배당, 이자율, 수수료, 증자, 신상품 출시 등에 대해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최소한의 준수 기준만 제시하고, 그 범위에서 금융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감독 쇄신·운영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전성이 양호하고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금융사에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형 금융회사에 대해서 공시기준, 보고서 제출 주기를 줄여주기로 했다. 금융위기 때에 만들어진 과도한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규제를 완화해 숨통을 터주고, 민원이 많은 금융사에 붙이던 ‘빨간딱지’도 없앤다.

이와 함께 2~3년 주기로 진행되던 금융사의 관행적인 종합검사는 오는 2017년에 사라진다. 부문검사 목적의 현장검사도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키로 했다.

진 원장은 “종합검사는 빈번한 금융사고 발생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현장검사도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신 “위규사항이 중대하거나 반복되는 회사에 대해선 가혹하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종전에 중징계로 인식된 기관경고나 문책경고 차원을 넘어 영업정지와 최고경영자 정직과 해임권고 건의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축소로 인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선진국형 경영실태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전예방 금융감독시스템(FREIS)’으로 상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핀테크 산업에 금융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진단포럼, 자율협의체 등으로 접목의 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장 안정성 확보차원에서는 가계부채,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기업 구조조정 등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경보 기능을 강화한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market index <10일>

코스피 1935.86 (−11.14)

코스닥 592.95 (−0.80)

금리(국고채 3년) 2.06 (+0.08)

환율(원·달러) 1092.00 (−3.50)

“협력사 동반성장 지속투자” 박영식 대우건설사장 밝혀

대우건설이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약속했다.

대우건설은 9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박영식(사진) 대우건설 사장을 비롯한 주요임원 15명과 95개 우수·주요 협력회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우수·주요 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사장은 이 자리에서 “협력회사의 경쟁력이 대우건설의 경쟁력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동반성장 추진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며 안전을 기업활동의 최우선으로 삼아 안전 혁신 노력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회사는 올해 최우수협력업체에 대해서 계약이행보증보험을 면제하는 등 협력회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상생경영을 실천할 계획이다. /김학철기자 kimc0604@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중견 건설사엔 기회?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 계획을 발표한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정작 기업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된 ‘1·13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10대 건설사 대부분이 ‘검토 중’이라는 소극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대형건설사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불투명한 수익성,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을 이유로 선뜻 나서지 않는 분위기다.

A건설사 관계자는 “올해 분양할 물량만도 수만 가구에 달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도 부족할 지경이다”며 “신규 분양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 예상 수익률 3~4%짜리 사업을 위해 인력을 세팅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B건설사 관계자는 “대규모로 사업을 하면 모를까 3~4개 단지만 가져가서는 매달 들어오는 월세도 얼마 안 되고 관리하는 시간과 비용만 더 들어간다”며 “정부가 추진한다고 하니 검토는 하겠지만 다음 정부에서도 뉴스테이가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느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10년 넘게 가꿔온 브랜드를 임대아파트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당장 해당 브랜드에 사는 입주민부터 들고 일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때문에 1호 뉴스테이의 주인공인 대림산업도 ‘e편한세상’ 브랜드 사용 여부는 확정하지 못했다.

대형건설사의 소극적인 태도에 일각에서는 뉴스테이 사업의 조기 정책을 위해서는 중견건설사를 유인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기존 분양 받은 5·10년 임대주택 부지를 뉴스테이 사업지로 전환해준다든가, 택지 납부조건을 완화해 주는 방법으로 중견건설사의 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강 세 준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은행, 핀테크 업체, 벤처캐피탈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핀테크 산업 육성 힘쓴다

신한·우리·하나은행-ICT기업, 업무제휴 추진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열풍과 이에 따른 금융규제 완화 기대감에 은행과 ICT 기업들이 잇달아 손을 잡고 협업에 나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KT와 손잡고 '사물인터넷(IoT) 및 핀테크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IoT 기술을 활용한 에셋 매니지먼트(Asset Management) 담보대출 관리시스템과 기가 비콘(Giga Beacon) 타겟 마케팅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공동 개발키로 했다.

하나은행은 다음 카카오와 전략적 업무제휴를 맺었다.

양사는 ▲핀테크(Fin Tech) 활성화 ▲창의적인 융복합 서비스 발굴 ▲비즈니스 모델 및 플랫폼 구축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TV를 보면서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강화된다. 신한은행의 'T-머니'가 바로 그것.

앞서 신한은행은 현대홈쇼핑과 손잡고 'T-커머스 시장 선도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가졌다. 이에 따라 양사는 2월 중 TV머니를 현대홈쇼핑의 T-커머스 결제 수단으로 도입, 간편 결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전자금융업 규율을 재설계하는 등 핀테크 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업은행에서 열린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은행권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 업계의 공동 노력이 중요하다"며 "핀테크 기업과 금융권간의 '동반자적 발전관계'에 대한 상호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5년전 '신한사태' 데자뷔?

차기 행장 놓고 라 전 회장·신 전 사장 라인 간 힘겨루기

신한금융지주가 신한사태 5년 만에 차기행장자리를 놓고 후계구도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금 증폭되고 있다.

서진원 은행장이 백혈병(혈액암) 증세로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라응찬 전 회장, 신상훈 전 사장 측근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여기에 한동우 현 회장도 가세하는 분위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오는 24일 새 은행장 선임을 위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이하 자경위)와 이사회를 잇따라 개최한다.

신한금융은 자경위에서 추천한 행장후보를 오는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공식 선임할 예정이다.

앞서 행장에는 현 서 행장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였다.

서 행장은 지난 2011년부터 3년 임기 동안 라응찬 전 회장으로부터 촉발된 '신한사태'를 성공적으로 수습하고 국내 리딩뱅크로 발돋움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행장 연임과 현 한동우 지주 회장에 이은 차기 회장 후보로도 거론됐다.

하지만 서 행장은 지난달 2일 출근해 시무식 이후 감기몸살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건강이 나아지지 않아 5일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 9~10일 그룹 경영포럼, 12~13일 일본 재일교포 주주 신년하례회 등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재도 서 행장은 건강상 이유로 업무복귀를 못한 상황"이라며 "지난달 15일 행장 대행으로 선임된 임영진 부행장이 당분간 총괄업무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행장의 연임 불가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라응찬 라인과 신상훈 라인 등 차기 행장을 위한 물밑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라응찬 라인으로는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여기에 알츠하이머병 치료 중이라던 라 전 회장은 최근 신한은행 동우회 송년의 밤 행사에 참여하고, 농심 사외이사로도 활동하면서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 라인인 이성락 신한생명 사장도 차기 행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어 신 전 사장은 오는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신한금융에 사장직 복직 허용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여기에 조용병 신한BNP파리바 자산운용 사장과 이동환 신한은행 부행장, 임영진 행장대행까지 차기 행장을 노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 행장이 한 회장의 파격적인 인사로 행장에 선임된 후 실적호조와 내부조직 재건을 성공적으로 해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위 사장측과 갈등을 빚은 적도 있는 만큼 이번 사태로 수면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조직내 갈등이 재점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 홍보부는 "행장선임건은 부서의 고유권한이 아닌만큼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KB국민카드, 저소득가정 어린이 위한 책가방 선물 제작 임승득 부사장(오른쪽)이 2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된 '예비 초등학생 책가방 보내기' 행사 후 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의 사무총장인 자공 스님(왼쪽)에게 기부금 1억원을 전달하고 있다. /KB국민카드 제공

농협금융, 4분기 당기순익 655억… 전분기비 63.2%↓

NH농협금융은 지난해 4분기 당기순이익이 65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분기 보다 63.2% 감소한 규모로 대한전선 유가증권 손상차손 673억원 등에 따른 것이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우리투자증권 패키지 인수와 관련한 염가매수차익 3655억원과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의 동반성장, 신용손실충당금이 대폭 하락한데 영향을 받았다"며 "4분기 연도말 결산과정에서 경남기업(266억원), 삼부토건(540억원), 동아건설(301억)등의 손실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작년 누적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162.3% 늘어난 7685억원을 기록했다. 명칭사용료 부담전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59.8% 증가한 1조 166억원이다.

같은기간 이자이익은 전년대비 7.5%(4,556억원) 증가한 6조 5,011억원으로 나타났고, 수수료이익은 방카와 보험 등의 성장에 힘입어 전년대비 58.4% 증가한 5,879억원을 기록했다.

주요 계열사인 농협은행의 지난해 누적 기준 당기순이익은 3,301억원(명칭사용료 부담전 5,519억원)을 시현했다.

4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 612억원 적자에서 789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62%로 전년대비 0.35%p 감소했다. 연체율은 전년 1.02%에서 0.77%로 줄었다.

이밖에 농협생명의 작년 누적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6.3% 증가한 1,493억원(명칭사용료 부담전 기준 1,639억원)을 기록했으며 4분기는 전분기 대비 22.5% 증가한 556억원이다.

같은기간 농협손해의 누적 당기순이익과 4분기 순익은 각각 338억원(명칭사용료 부담전 기준 346억원), 85억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농협금융의 연결기준 총자산은 315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4% 증가했다.

자본적정성은 연결자기자본비율 14.06%(잠정치)를 보였으며 자기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은 각각 11.60%(잠정치), 9.89%(잠정치)로 나왔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지난해 농협금융은 연초에 발생한 고객정보유출사고에도 불구하고 전직원이 사업추진에 매진해 각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저력을 보였다"며 "올해엔 출범 4년차를 맞아 외형에 걸맞는 수익성 회복과 새로운 고객 신뢰 구축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현대차 '겹악재'… 주가 추락 어디까지

한전부지 매입 충격 지속에 대외여건 나빠 실적부진

현대자동차의 주가가 연일 바닥을 치고 있다.

한전부지 매입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은 데 이어 대외 여건 악화로 실적 부진을 겪는 등 악재가 잇달았기 때문이다.

현대차 주가는 지난해 9월 한국전력부지 매입 당일 곤두박질 친 이후 연일 하락세다.

지난해 9월 현대차그룹은 감정가의 3배가 넘는 10조5500억원에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매입했다.

현대차가 주주 이익 실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유 현금을 부지 고가 매입에 사용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기 시작했다.

당시 글로벌 로펌의 한 변호사는 현대차의 한전부지 매입에 대해 "현대차 의사결정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들에 대한 배임행위"라며 실망감을 토로했다.

또한 일부 주주는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반발이 거셌다.

시장의 실망은 주가 하락의 단초가 됐다.

부지 매입 직전 21만8000원(지난해 9월 17일 종가)이던 주가는 매입 직후 급락해 3년래 하한가인 14만9000원(11월 7일 종가)을 기록했다.

올 들어서도 하한가 주변을 맴돌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현대차의 한전 부지 매입이 주가 하락의 시발점"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내놓으며 신뢰 회복 기회마저 놓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4분기부터 올 1월까지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현대차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7.6% 줄어든 1조8800억원을 기록, 시장 예상치를 5.7% 하회했다.

또한 지난 1월 판매량이 지난해 동기보다 6.7% 감소한 총 35만5368만대에 그쳤다.

신흥국 통화의 약세, 연말 인센티브 확대, 기말 생산 증가에 따른 미실현 손익의 증가와 함께 러시아 통화 약세에 따른 매출채권(외상)에 대한 평가손실이 더해진 것이 실적 부진 원인으로 분석된다.

증권업계는 현대차의 실적 부진이 올해 1분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신증권 전재천 연구원은 "대외여건이 좋지 않아 현대차의 1분기 실적은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차의 주요 타겟인 브릭스 시장이 루블화 약세로 이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며 엔저로 인해 일본 자동차업체와의 경쟁에서도 불리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채희근 현대증권 연구원 역시 "올해 현대차의 성장폭은 제한적일 것"이며 "지난해 현대차의 실적악화를 초래한 대외악재가 올해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현대차의 실적이 큰 폭으로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 보았다.

현대차는 궁여지책으로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가 회복을 꾀하고 있다.

2014년 결산에서 현대차는 전년대비 54% 배당 확대를 결정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일까지 총 4597억8000만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완료했다.

/이보라기자 purple@metroseoul.co.kr

ELS·DLS 등 150억원 규모 공모

하이투자증권은 11일부터 13일까지 ELS 2종과 DLS 1종을 총 15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

HI ELS 719호는 KOSPI200지수, HSCEI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자동상환 평가일 6개월, 12개월), 85%(18개월, 24개월), 80%(30개월, 36개월)이상이면 최대 21.3%(연 7.1%)의 수익을 지급한다.

HI ELS 720호는 KOSPI200지수, HSCEI 지수, EuroStoxx 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로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6%(6개월, 12개월, 18개월), 85%(24개월, 30개월, 36개월)이상이면 최대 24.6%(연 8.2%)의 수익을 지급한다.

HI DLS 59호는 WTI 최근월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6개월 만기 3개월 단위 자동조기상환형 DLS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3개월, 6개월)이상이면 최대 4.0%(연 8.0%)의 수익을 지급한다.

하이투자증권은 세 상품 모두 만기까지 상환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투자기간 중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으면 만기 시에 최초 제시수익률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이보라기자

보험가입자 민원 만족도 크게 떨어져

보험가입자가 민원 제기를 통한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연구원은 10일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 소비자 230명에게 실제 자신이 경험한 분쟁해결 절차와 그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공정성(48점)과 신속성(46.4점) 영역이 평균 50점 이하를 기록했다.

이어 보험 소비자 230명 가운데 불만 발생 시 불만 해결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30.9%에 불과했고 69.1%는 들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민원 데이터를 민원 포털 사이트에 비교표로 게재 ▲시장 중심의 상향식 민원 프로세스 확립 ▲감독기구에서 분리된 통합 금융 옴부즈만 기구 설립 등이 제시됐다.

박선영 연구위원은 "객관적인 민원등급과 실제 민원을 경험한 보험소비자들의 체감 만족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비교 검토한 결과 소비자 체감지표와 객관적인 민원등급간 괴리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LIG손보, 'LIG매직카운전자보험Ⅲ' 출시 LIG손해보험은 10일 운전자보험 신상품 'LIG매직카운전자보험Ⅲ'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기존의 교통사고 처리, 자동차사고 벌금 등 형사적 책임 보장을 비롯해 추가적인 부가서비스와 '해피오토멤버스 매직카 서비스'가 탑재됐다. /LIG손해보험 제공

자녀 설 선물, 용돈 대신 펀드 들어줄까?

설날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의 마음을 들뜨게 한다.

자녀에게 조금 더 의미있는 선물을 하고 싶다면, '어린이 펀드'를 선물하는 건 어떨까. 미래를 위한 목돈 마련 뿐만 아니라 경제관념도 길러줘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어린이 펀드'는 일반 펀드와 운용 측면에선 큰 차이가 없다. 투자기간이 길다는 점을 고려해 장기 우량주에 투자한다.

경제 전문가들은 "자녀의 나이, 목돈 마련의 목적 등을 고려해 펀드, ELS 등 각종 금융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들은 다양한 '어린이 펀드'를 선보이거나 관련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삼성자산운용이 선보인 '삼성 착한아이예쁜아이 어린이펀드'는 엄선된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상품이다. 장기투자에 적합한 시가총액 상위 200위 이내 종목에 주요 투자 대상이다. 특히 어린이 경제블로그에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한 운용 보고서를 받아 볼 수 있다.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첨 등을 통해 다양한 국내외 역사, 경제, 문화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한국투자증권의 '한국밸류 10년 투자 어린이증권투자신탁1호(주식)' 펀드도 기업의 실질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한 후 적정가에 매도하는 가치투자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자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면서도 철저한 위험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미래에셋의 '우리아이3억만들기 펀드'는 국내 주식 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신영증권은 설날을 맞아 오는 27일까지 '세뱃돈으로 자녀의 저축 습관을 길러주세요'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고객이 자녀의 이름으로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거나 (월 20만원, 3년 이상 약정시) 사전 증여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10년 이상 장기 적립식 저축으로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저축 습관을 심어줄 수 있는 어린이 펀드로는 '신영주니어경제박사펀드'가 있다. 신영주니어경제박사펀드는 지난 2005년 설정 이후 올해로 10년을 맞이한 대표적인 어린이 금융상품이다. 설정일 이후 누적수익률은 220.6%, 최근 5년 수익률 49.15% (2015년 2월 6일 기준)로 전체 어린이 펀드 중 최상위 수준이다.

신영주니어경제박사펀드는 5년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저평가된 가치주를 엄선해 장기투자한다. 신영증권에서만 가입이 가능한 이 상품은 어린 자녀의 성장기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질병에 대비한 보험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적립식 투자 외에 사전 증여신청으로도 이번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김민지기자 minji@

대유위니아 종합가전 1위 '야심만만'

올해 연구 개발 인력 25% 증가…3월 전기포트 이어 4월 전략제품 출시 앞둬

국내 김치냉장고 시장 1위인 대유위니아가 종합생활가전에서도 1위를 노리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대유위니아는 올해 주력상품인 김치냉장고 딤채와 에어컨, 에어워셔, 양문형 냉장고뿐 아니라 주방가전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종합생활가전업체로 도약을 위한 승부수를 띄운다.

3월 전기포트를 시작으로 4~5월에는 전략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전략제품의 경우 대유위니아가 대유그룹 자동차부품 계열사인 대유에이텍에 인수됐다는 점에서 자동차 관련 제품을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 또 올해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제품 라인업만 10여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유위니아가 공격적으로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은 지난해 대유그룹 품에 안기면서 그룹의 든든한 지원 속에 공격적인 연구개발(R&D)을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유위니아는 지난해 11월부터 연구 개발 인력 확보에 집중했으며 현재 25% 인력이 늘어난 상태다. 특히 기존 아산 공장에는 수도권 연구 인력을 영입해 활발한 기술 개발을 진행중이다. 또 대유그룹에서 보유하고 있는 성남 공장 부지를 활용, 연구 인력과 기계를 이전하며 연구·생산 단지로 조성하고 있다.

대유위니아가 이처럼 제품 다각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주력 사업인 김치냉장고와 에어컨 시장이 포화 상태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현재 김치냉장고 업계는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 시장도 포화상태에 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9일 통계청이 집계한 2014년 김치냉장고 수출량을 보면 2만6638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년(3만1048대)보다 14% 감소했다.

이는 에어컨 시장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해 에어컨 제조업체들은 지난해와 비슷한 디자인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라인업도 대폭 축소하고 있다. 불과 2~3년전 수십 가지의 라인업을

출시하는 것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 침체와 경쟁 심화로 냉장고, 에어컨 등의 수요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결국 교체주기는 물론 구매력이 높고 트렌드에 민감한 생활가전 시장은 중견·중소기업들의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고 있다.

김만석 대유위니아 홍보팀 부장은 "지난해 11월 부터 주력 제품(백색가전) 뿐만 아니라 주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생활가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채널 구축을 위한 별도 태스크포스팀(TFT)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생활가전 기업으로 성장을 위해 올해 영업과 생산, 개발 등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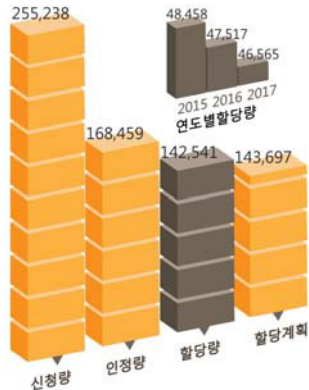
"탄소배출 할당량을 늘려라"

석유화학업체 정부에 소송 제기하기로

석유화학업체들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정부가 기업에 할당한 탄소배출량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10일 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LG화학,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등 10개 주요 석유화학업체들은 정부의 탄소배출권 할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정부가 개별기업 525곳에 모두 15억9800만KAU(Korea Allowance Unit·탄소배출량 1t에 해당)을 할당한 뒤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적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게 만든 제도다.

석유화학업계가 2018년 말까지 할당받은 탄소배출량은 총 1억4369만KAU다. 기존 배출량의 15.4%를 줄여야하는 수치다. 석유화학협회는 "할당량 부족분을 시장가격(t당 1만원)으로 구매할 경우 3년간 2467억원을 부담해야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석유화학업종 배출권 할당량 수준(단위: 천CO2톤) /자료=한국석유화학협회

업계 관계자들은 하소연 일색이다. LG화학은 "기업이 성장하는데 정부의 탄소배출량 할당량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부담함을 호소했다. 한화케미칼 역시 "이번 소송은 석유화학협회 차원의 일"이라면서도 "자체적으로 이리저리 시뮬레이션을 해봤지만 할당량에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탄소배출규제로 인한 성장동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환경단체 환경운동연합은 배출권거래제가 산업계의 과도한 입김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제 탄소배출권 거래가 시작됐는데 기업들이 집단적으로 소송까지 벌이는 것이 아쉽다"며 "기업이 이윤을 추구를 뛰어넘어 환경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윤성규 장관은 10일 배출권 할당량에 이의를 제기한 40개 업체의 입장을 수용해 배출권 670만KAU를 추가 할당하기로 했다. 추가로 할당된 총 670만KAU는 정부가 보유한 배출권 예비분 8900만KAU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양소리기자 10sound@

동부하이텍 14년 만에 첫 연간 영업익 흑자

동부하이텍이 지난 2001년 반도체 상업생산 이후 14년 만에 첫 연간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다.

동부하이텍은 지난해 매출 5677억원, 영업이익 437억원을 기록해 연간 영업이익이 흑자전환했다고 10일 밝혔다. 동부하이텍에 따르면 시스템 반도체산업의 높은 진입장벽과 과다한 초기투자 비용 때문에 십 수년간 적자를 면치 못했다.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는 영업과 생산이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영업 측면에서는 중국 스마트폰 및 대만 IT기기향 전력반도체와 이미지센서, 터치스크린칩, 소비가전용 칩 사업 호조가 실적 호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UHD TV향 디스플레이 구동칩 사업호조도 흑자전환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생산에서는 지난해 가동률 70% 이하에서도 영업이익을 낼 수 있도록 원가구조를 혁신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동부하이텍은 원부자재 및 설비 국산화, 경비 절감 등 원가절감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동부하이텍 관계자는 "지난해 영업이익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면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올해는 웨어러블, 사물인터넷(IoT)용 초저전력 반도체와 센서 등에 기술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한 해 매각 이슈가 부각되는 가운데에서도 전 임직원들이 한데 뭉쳐 영업이익을 달성했으며, 올해에는 경상이익 흑자를 목표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양성운기자

9일(현지시간) 권오준 포스코 회장(가운데)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폐장을 알리는 타종을 하고 있다. /포스코 제공

권오준 포스코 회장, 뉴욕서 첫 해외 기업설명회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미국 뉴욕에서 취임 후 첫 해외 기업설명회(IR)를 열었다.

9일(현지시간) 뉴욕 포시즌호텔에서 진행된 IR에서 권 회장은 "3년 중기 경영계획에 따라 내실을 다지겠다"며 "주주 여러분들의 지원과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65조984억원, 영업이익 3조2135억원의 실적을 낸 포스코는 올해 매출액 목표를 연결기준 67조4000억원, 단독기준 29조3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날 권 회장은 포스코 상장 20주년을 기념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장 마감을 알리는 타종을 했다.

포스코는 1994년 10월 14일 한국기업으로는 최초로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바 있다.

1995년 10월 27일 영국 런던증권거래소, 2005년 11월 22일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각각 상장함으로써 글로벌 3대 주식시장에 모두 상장된 유일한 한국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사측은 전했다.

/이정필기자 roman@

대구·삼성 창조경제단지 첫 삽 떴다

옛 제일모직 부지서 진행…테마존 조성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조성사업에 삼성이 발벗고 나섰다. 삼성은 10일 오후 대구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옛 제일모직 부지에서 '대구·삼성창조경제단지' 기공식을 열었다. 이날 착공을 시작한 단지는 1954년 제일모직이 설립된 곳이다. 연면적 4만3040㎡로 삼성은 약 900억원을 들여 공사를 진행한다.

단지는 창조경제존, 삼성존, 아뜰리에존, 커뮤니티존 등 테마별 4개 구역으로 조성된다. 대표 시설들이 들어설 '창조경제존'은 기술과 예술이 융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간이다. 4500㎡의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벤처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시설이 갖춰진다. 문화예술 창작센터도 설립해 회화, 공예, 패션, 사진 분야 등의 예술가와 디자이너를 위한 작업실과 함께, 갤러리 등 전시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삼성존'에는 대구에서 창업하고 성장해온 삼성의 역사를 소개하는 시설인 '삼성상회'와 '창업기념관' 등이 들어선다. 삼성 시초인 삼성상회의 원형을 복원해 창업 당시의 생산·판매설비 제품을 전시한다.

제일모직의 옛 본관은 창업기념관으로 탈바꿈한다. 고 이병철 삼성 회장의 집무실과 창업홀, 제2창업홀, 영상관 등이 들어서 삼성의 탄생과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공간으로 만들어진다. 창업기념관 옆에는 방문자들이 삼성전자의 신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삼성홍보관과 제품을 구매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디지털프라자도 들어선다.

대구 삼성 창조경제단지 조감도.

제일모직의 옛 여자 기숙사는 '아뜰리에존'으로 개조된다. 미술 소품과 공예품을 직접 만들고 판매하는 공방과 카페가 들어선다. 기숙사의 일부 시설은 원형을 보존해 당시 생활상을 보여주는 전시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커뮤니티존'에는 시민들의 휴식터로 활용될 중앙공원과 주민문화센터가 마련된다. 다양한 강좌와 공연, 이벤트 등이 열리고 공원 주변에는 쇼핑 공간도 조성된다.

이상훈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사장은 "창조경제 핵심인 과학기술과 문화콘텐츠를 한데 모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터전이 될 것"이라며 "삼성 창업 정신이 살아있는 이곳이 새로운 창업가들의 성장 터전이자 창조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펀드를 조성해 창업가와 소규모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유럽서 디지털 사이니지 신제품 공개

삼성전자, ISE2015 참가…다양한 솔루션 눈길

삼성전자는 10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기업간 거래(B2B)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Integrated Systems Europe) 2015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전시장에는 '스마트 아웃도어 사이니지' '비디오월 사이니지' '스마트 LED 사이니지'로 구성된 하이라이트 존이 설치된다. 전시장 전면에는 외부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3000니트(nit) 초고휘도 밝기를 적용해 시인성을 높이고 IP56 등급의 방수, 방진 기능을 탑재한 'OHD' 모델을 전시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스마트 비디오월 솔루션을 함께 선보인다. 베젤 간 거리가 3.5㎜로 세계 최소인 제품 'UDD'는 '데이지 체인' 기능을 통해 100대까지 연결이 가능하며 '매직인포 솔루션'을 활용할 경우 250대까지 초고해상도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베젤 없이 대형 화면을 선명한 화질로 구현 가능한 스마트 LED 사이니지도 대거 선보인다. 이번에 전시되는 제품은 픽셀과 픽셀 간 거리가 업계 최고 수준의 제품으로, 4000대 1 명암비의 선명한 화질에 이상 징후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원격 진단 기능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향후 다양한 LED 제품군을 지속 출시해 기존 LCD 제품과 함께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2015년 커브드 UHD TV 기능을 갖춘 호텔용 디스플레이 'HD890W'와 블루투스로 모바일 제품과 연동해 개인 음악을 TV의 스피커로 들을 수 있는 'HD890U', 호텔의 다양한 정보 제공이 가능한 'HD690U' 등 다양한 호텔 전용 디스플레이도 눈길을 끈다. /정혜인기자

ISE 2015 삼성전자 부스의 모습. /삼성전자 제공

기업간 거래 강화하는 삼성·LG

아시아 시장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 기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기업간 거래(B2B)에 공을 들이고 있다. 양사는 잇따라 B2B 디스플레이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스마트 기능과 특화 기능을 강조한 다양한 상업용 디스플레이를 연이어 선보이고 있다.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가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5'에서도 관련 제품을 전시했다. 10일(현지시간)부터는 사흘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B2B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 2015'에 참여해 신제품을 대거 공개했다. 특히 의류매장용 미러 디스플레이, 호텔용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솔루션을 앞세운 것이 특징이다.

현재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복수의 디스플레이를 연결해 옥외 광고판, 식당 메뉴판 등으로 활용되는 차세대 광고 디스플레이로서 단순히 영상을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커뮤니케이션까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매번 광고판을 교체할 필요 없이 정보를 바꿀 수 있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즉각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매체로서도 각광받고 있다.

LG전자가 10일(현지시간)부터 3일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상업용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 (Integrated Systems Europe)'에서 다양한 상업용 디스플레이를 선보이며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모델이 스마트 교실 체험공간에서 98형 멀티터치 디스플레이를 체험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상업용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광고판이 많지 않은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가 예상된다"며 "혁신적인 솔루션을 갖춘 디스플레이 제품을 통해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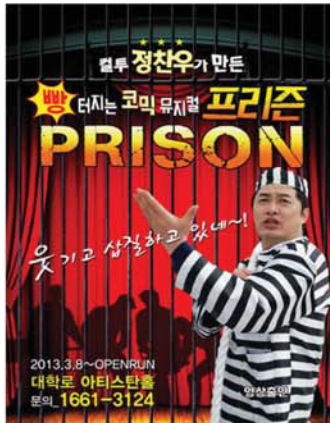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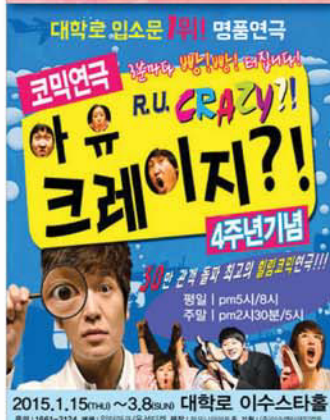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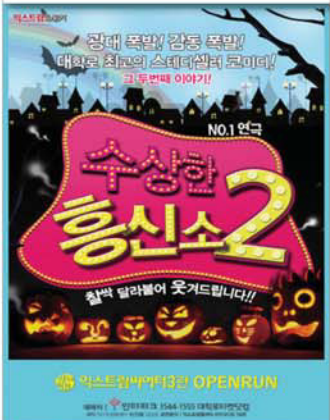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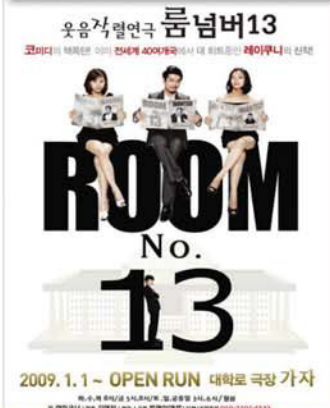
LG전자, 구글 합작 'G3' 전용 VR기기 제공

LG전자가 글로벌 가상현실 헤드셋 시장 선점을 위해 본격적인 마케팅에 돌입한다.

LG전자는 구글의 가상현실(VR) 기기 설계도면인 '카드보드' 기반으로 제작한 G3 전용 VR 기기 'VR for G3'(사진)를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LG전자는 내주부터 국내 G3 신규 구매 고객 대상으로 이 기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할 방침이다. 전세계 주요 국가에서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구글은 2014년 I/O(개발자회의)에서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가상현실을 쉽게 체험하도록 카드보드 오픈 소스를 공개한 바 있다. LG전자가 제공하는 'VR for G3'는 플라스틱으로 제작돼 기기 내부에 G3 스마트폰을 간편하게 탈·부착할 수 있다.

G3 사용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VR 전용 앱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한 상태에서 'VR for G3'을 부착하면, 실감나는 VR 콘텐츠를 손쉽게 감상할 수 있다.

LG전자는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유료 VR앱인 'Roboblitериation' 데모 게임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양성운기자

삼성, 애플 스마트워치에 대응할 전략은

삼성 오르비스 무선 충전기능 탑재 등 경쟁력 갖춰

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워치 시장 선점을 위해 제품 출시시기를 앞당기는 등 물밑 신경전이 한창이다. 애플은 오는 4월 스마트워치 시장의 절대강자인 삼성전자를 제치기 위해 첫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를 서둘러 출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도 애플워치의 대항마로 '오르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스마트워치 오르비스를 이전 사각프레임 모델과 달리 원형 디스플레이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전식 다이얼은 메뉴, 리스트, 스크롤 등의 기능을 지원하고, 측면의 태엽을 통해 전화나 음악기능도 사용 가능하다. 지난해 선보인 갤럭시 기어2·기어2 네오와 같이 독자 운영체제인 타이젠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전 방식도 무선 기능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워치의 단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충전의 번거로움이었다. 삼성의 오르비스로 스마트워치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애플워치 출시에 앞서 오르비스 출시를 서두르는 것은 애플에게 시장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는 게 지배적이다. 애플워치가 아이폰6와 시너지 효과를 내면 그동안 스마트워치 시장 1위를 지키던 삼성전자의 입지에도 큰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애플은 최근 들어 아이폰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지난해 4분기엔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량과 동률을 이루는 성장을 했다. 시장조사기관 캐널리스는 올해 애플 워치 출시 효과로 스마트워치 시장이 지난해보다 3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애플이 오는 4월 출시할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 /연합뉴스

반면 애플은 그동안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삼성전자에게 시장을 내줘왔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반등의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아이폰6 대박'으로 지난해 4분기에 사상 최대 성적을 거둔 애플은 4월에 내놓을 애플워치가 아이폰의 바통을 이어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비록 후발 주자지만 대화면 아이폰 인기의 여세를 몰아 스마트워치 시장도 제패하겠다는 속셈이다.

애플이 택한 전략은 '고급화'다. 애플워치는 골드·스포츠·일반 등 세 가지 모델을 선보일 예정인 가운데, 골드 모델의 경우 보석이 추가돼 고급스러움을 더한다.

외신에 따르면 애플이 귀금속으로 분류될 수 있는 애플워치 판매를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판매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매장 내부에 고급형 모델을 보관할 수 있는 특별금고도 설치했다. 애플워치는 iOS8 버전이 적용되며, 애플 자체 헬스케어 플랫폼인 '헬스', '헬스 키트'와 연동된다.

/유선준기자 rsunjun@metroseoul.co.kr

SKT, 재난망 구축 필수 '특화 기능 기술' 확보

SK텔레콤이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시범사업을 앞두고 재난망 구축에 필수적인 특화 기능 구현을 위한 기술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SK텔레콤은 국내 1위 이동통신사로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최고 품질의 LTE 재난망 구현을 위해 ▲재난망 설계 및 운용 ▲LTE 영상 및 음성 무전 기능 및 관제 솔루션 ▲재난망 특화 단말 등 네트워크, 솔루션, 단말기 전 영역에서 중요한 특화 기술을 확보했다.

SK텔레콤은 최고 수준의 이동통신망 운용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재난망 설계와 운용 기술을 확보했다.

SK텔레콤은 재난망 주파수로 사용될 700MHz 대역 주파수의 특성을 반영해 최적의 재난망 설계 모델을 개발했다. SK텔레콤은 분당 사옥 인근에 시험용 기지국을 구축한 뒤, 재난망 설계 모델이 실제 상용 환경에서도 빈틈없이 잘 작동한다는 것을 실측·검증 완료했다.

또 장애 발생시에도 통신 백업이 가능한 '이중화 솔루션'과 LTE 펨토, 간섭제거 고출력 중계기, 최적화 자동화 시스템 등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망 운용을 효율화하는 솔루션도 개발했다.

SK텔레콤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지령 전달을 위한 LTE 영상 음성 무전 기능(Push To Talk, PTT)·관제 솔루션을 개발했다.

이 솔루션은 OMA(Open Mobile Alliance) 표준을 기반으로 설계됐으며 영상 통화, 단말 제어 등 정부가 필수 기능으로 규정한 기능을 대부분 지원한다. /유선준기자

KT·우리은행, IoT 기술로 금융혁명 앞당긴다

KT는 우리은행과 KT 광화문빌딩 EAST에서 IoT(사물인터넷)·핀테크(FinTech) 사업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 내용은 ▲IoT 기술을 활용해 애셋 매니지먼트 담보대출 관리 시스템 개발 ▲비콘을 활용한 위치기반 금융상품·고객 서비스 개발 ▲창조경제 기반의 푸드트럭 관련 사업 공동협력 ▲금융·통신이 융합된 비즈니스 모델 공동 개발 등 총 4가지다.

양사가 공동 개발하는 '애셋 매니지먼트 담보대출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면 동산담보물건에 무선통신과 GPS 센서가 탑재된 IoT 단말을 부착해 위치 추적이 가능하며 담보로서의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우리은행 이광구 은행장(왼쪽)과 황창규 KT 회장이 9일 오후 KT 광화문빌딩 EAST에서 'IoT 및 핀테크 공동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애셋 매니지먼트 대출상품 개발로 동산담보대출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KT와 협력을 통해 지급결제 등 IoT를 활용한 신규 금융상품을 개발해 전방위 핀테크 사업을 추진해 국민금융 서비스에 함께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황창규 KT 회장은 "우리은행과 핀테크 사업협력은 이종산업 간의 융합 시너지를 창출하는 좋은 귀감이 될 것"이라며 "미래융합사업의 기반인 IoT 기술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하고 혜택 많은 금융생활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준기자

설연휴 통화장애 대비 종합상황실 운영

LG유플러스는 설 연휴 기간 안정적인 모바일 서비스를 위해 1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상암사옥에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사 측은 종합상황실에 네트워크 담당 직원들을 24시간 상주시키고 통화량 또는 데이터 트래픽 폭증에 따른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할 방침이다.

명절 때 통화·데이터 장애가 우려되는 주요 거점지역에는 현장요원을 평상시의 2배로 증원했다.

경부·중부·영동·서해안 등 주요 고속도로 분기점, 나들목, 휴게소, 톨게이트 등 교통체증 시 통화량 급증이 예상되는 곳에는 네트워크 장비증설을 완료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명절 기간 데이터 트래픽이 몰리는 지역에서도 고객들이 스마트폰으로 고화질 TV·영화를 시청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준기자

캐딜락 'ATS 럭셔리 세단' 국내 상륙

인텔리 하이빔 컨트롤·차선유지·기능 등 첨단 편의사양 적용

지엠코리아(주)(대표 장재준)가 캐딜락 특유의 대담한 디자인과 퍼포먼스에 편의성과 안전성을 대폭 강화한 '2015 ATS 세단'을 출시한다.

2015 ATS는 디자인과 첨단 사양이 대폭 업그레이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오히려 낮아져, 상품성과 가격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했다.

2015 ATS는 차체 전면부 그릴과 범퍼의 공기 흡입구를 더 크고 넓게 재설계하는 한편, 간결하면서 강렬한 새 캐딜락 엠블럼을 적용해 대담하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강조했다. AWD 모델에는 18인치 알루미늄 휠이 적용돼 더욱 스포티한 스타일과 주행감각을 선사한다.

2015 ATS에는 한층 강화된 첨단 통합 제어 및 안전 시스템인 '드라이버 어웨어니스 패키지(Driver Awareness Package)'와 함께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추가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큐(CUE) 등 각종 편의사양이 추가됐다.

안전 경고 햅틱 시트와 전방 추돌 경고, 차선 이탈 경고 등이 포함돼 있던 기존 드라이버 어웨어니스 패키지에는 인텔리빔 하이빔 컨트롤(Intellibeam High-beam Control)과 차선 유지 기능이 새롭게 적용돼 더욱 능동적인 안전성을 제공한다. 인텔리빔 하이빔 컨트롤은 도로 맞은편에서 차량이 접근하거나 전방 주행 차량이 감지되면 상황에 따라 하이빔과 로우빔을 자동으로 전환하는 지능형 헤드램프 시스템이다. 차선 유지 기능은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차선 변경이 감지될 경우,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이 조향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주행 차선을 유지한다.

2015 캐딜락 ATS 세단은 10일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 국내 판매가격은 ▲럭셔리(후륜구동) 4450만원 ▲프리미엄(후륜구동) 5100만원 ▲ AWD(상시4륜구동) 5400만원 (모두 부가세 포함).

/김종훈기자 fun@

티몬 인수열기 '급랭'… 매각 장기화?

LG유플러스 이어 CJ오쇼핑도 입찰 참여 철회… 경기침체 속 고평가 논란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대표 신현성·이하 티몬) 인수전의 열기가 급격히 식고 있다. 인수후보들이 속속 인수전에서 이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CJ오쇼핑은 티몬 지분 인수를 위한 본입찰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CJ오쇼핑 관계자는 "지난주까지 티몬 인수에 대한 예비실사를 진행한 결과, 가격과 기타 조건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서로 달라 인수에 불참키로 했다"며 "CJ오쇼핑은 티몬 인수 여부와는 별개로 향후 모바일 유통채널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LG유플러스도 "티켓몬스터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1월9일 자율공시 한 바 있으나 현재 진행 중인 티켓몬스터 매각 공개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티몬 인수전은 현재 사모펀드 KKR만 남게 됐다.

CJ오쇼핑과 LG유플러스가 티몬 인수 입찰에 불참을 결정한 배경은 인수 가격에 대한 부담과 시너지 한계 등 으로 풀이된다.

티몬의 시장 평가가 1조5000억원에서 2조원까지 나오는 것에 대해 거품이 있으며 지나치게 고평가됐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또 티몬은 지난 몇 년간 실적 악화가 두드러졌다. 2013년 티몬의 매출액은 1149억원, 영업손실은 708억원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역시 적자를 면치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도 좋지않은 상황이다.

업계 일각에선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티몬의 매각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인 유플러스, CJ까지 가세했지만 결국 발을 빼면서 인수전 열기가 사그라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커머스시장이 위기설이 불고지고 있는 가운데 섣불리 뛰어들었다가 오히려 기업에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티몬 측은 ""딜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매각과 관련한 이렇다할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티몬은 2010년 5월 설립된 국내 최초 소셜커머스 업체다. 이듬해 미국 소셜커머스업체 리빙소셜에 인수됐다가 다시 지난해 1월 미국 그루폰 그룹이 지분 100%를 2750억원에 인수했다. 이후 10월 그루폰이 경영권이 아닌 지분 매각을 고려한다고 밝히면서 1년여 만에 다시 매물로 나왔다.

/김보라기자 bora6693@metroseoul.co.kr

오늘부터 청계광장서 한우 직거래장터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11~1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직거래장터를 연다. 이번 행사에서는 경북·전북 지역의 대표 한우인 '의성한우'와 '정읍한우'가 참여해 안심·등심·채끝·양지·사골·우족 등 다양한 부위의 한우를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한다. /한우자조금 제공

현대百그룹, 면세점 사업 본격 추진

별도법인 설립… 서울시내 면세점 입찰 참여

현대백화점그룹이 서울시내 면세점 입찰에 출사표를 내며 면세점 사업에 본격 뛰어든다.

현대백화점그룹은 그룹 내 별도법인을 설립한 뒤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면세점 자체 성장성 뿐만 아니라 백화점·홈쇼핑 등 그룹 주력사업과의 시너지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 진출을 결정했다"며 "그간 축적된 유통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종합생활문화기업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지선 회장.

서울시내 면세점을 시작으로 공항 면세점과 해외 면세점으로 사업을 확장, 면세점 사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키울 계획이다. 그룹은 3년 전부터 별도의 '신규사업추진팀(T/F)'을 구성해 면세점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 최근엔 국내 대형 면세점에서 10년 넘게 면세사업 마케팅 전략 및 영업 등을 총괄했던 임원을 영입하기도 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기존 면세점과 차별화된 매장 구성과 국내 중소기업 브랜드 판로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제품 전문관을 콘셉트로 하는 대규모 면세점 운영을 구상하고 있다.

김창섭 현대백화점그룹 기획조정본부 상무는 "백화점 등에서 축적된 유통 노하우를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신규 고용창출은 물론, 경쟁력 있는 우수 중소기업 상품 발굴 및 판로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롯데백화점, '전통문화 알리미'로 나선다

롯데백화점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전통 의상인 '한복 알리기' 운동과 전통 놀이 홍보에 앞장선다.

롯데백화점 본점 영플라자에서는 13일부터 18일까지 문광부 산하 기관인 '한복진흥센터'와 함께 '신(新) 한복 전시회'를 연다. '신한복 전시회'는 문광부가 선정한 한복 디자이너 8명의 대표작을 전시하는 이벤트다. 14일부터 15일까지 본점·잠실점·영등포점을 포함한 총 7개 점에서는 '한복 놀이단'과 함께하는 '플래시몹' 행사를 진행한다.

이외에 한국의 전통놀이 문화를 중국 고객들에게 선보이는 다양한 행사도 연다. 롯데아울렛 서울역점에서는 18~21일 까지 요우커들이 함께하는 한·중 전통놀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투호 던지기', '제기 차기' 등의 한국 전통놀이와 떡메치기 체험을 통한 인절미 시식, 그리고 약과 등의 전통 음식을 요우커들에게 내놓는다.

이부진, 거침없는 글로벌 행보

신라면세점, 세계 4위 창이국제공항 매장 오픈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6·사진)의 글로벌 행보가 거침없다.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는 리서우항 창이국제공항 CEO,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 화장품·향수 면세점 '그랜드 오픈 기념식'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신라면세점은 매출 규모 세계 4위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에 면세 매장을 오픈하며 글로벌 면세업체로 거듭나고 있다.

신라면세점은 지난해 10월 창이국제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넘겨받은 3개월 여에 걸친 리모델링을 마쳤다. 창이국제공항 3개 터미널(1~3터미널)의 모든 화장품·향수 매장(19개 매장, 5575㎡, 182개 브랜드)에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면세사업권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계약기간은 2020년 9월 30일까지다.

신라면세점은 국내 화장품 브랜드와 동반 진출해 창이국제공항 면세점이 한국 화장품과 한류 문화 확산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에 이은 '제2의 K-코스메틱 쇼핑 허브'로 육성할 방침이다.

차정호 호텔신라 부사장(면세유통사업부장)은 "인천국제공항 화장품·향수 면세점 운영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중소·중견기업과 손잡고 한국 화장품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이마트, 알리바바와 中 온라인몰 진출

이마트(대표 이갑수)는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중국 B2C온라인몰인 '티몰 글로벌'(TMALL GLOBAL)에 진출한다.

이마트는 지난 5일 알리바바 그룹이 해외 유명 브랜드의 중국 내 온라인 유통을 위해 운영 중인 '티몰 글로벌' 내 이마트관 운영을 위한 도메인을 국내 대형마트 최초로 개설했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3월 중순 '티몰 글로벌' 내 이마트 전용관을 오픈할 예정이며, 도메인은 'http://emart.tmall.hk'이다.

이마트 측은 "한국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공식품과 일상용품, 전기밥솥, 홍삼정 등이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필수품으로 자리잡을 만큼 인기가 높다"며 "중국에서의 온라인몰 시장은 연간 40% 이상의 고신장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성장세가 높아, 국내 대형마트 1위인 이마트의 중국 온라인시장 진출을 통한 한국 상품 수출 판로 확대로 중국 역직구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오는 3월 중순 티몰 글로벌 이마트관 오픈시 김, 과자, 음료, 된장등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가공식품과 함께, 전기밥솥, 홍삼정, 여성위생용품 등 100여개 상품의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상반기까지 500여개 품목으로 판매를 확대한다는 목표다.

최우정 이마트 온라인 총괄 부사장은 "중국은 온라인 시장 성장이 높으며 특히, 한국 이상으로 해외 직구 성장이 가파르다"며 "이번 이마트몰의 중국 온라인 시장 진출은 한국 상품의 수출 판로를 넓히기 위한 것으로 중국 시장으로의 역직구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발업계 '명동 혈투'

폴더·레스모아·슈마커·ABC마트 등 경쟁

캐주얼 신발 업계가 명동 상권을 두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패션·화장품 업계의 주요 거점으로 통하는 명동에 멀티숍 등 캐주얼 신발 브랜드 매장이 빼곡히 들어서 경쟁하고 있다.

명동 캐주얼 신발 상권은 유네스코 거리를 중심으로 폴더(이랜드), 레스모아(금강제화), 슈마커(슈마커), ABC마트(ABC마트코리아) 등의 매장이 걸어서 2~10분 거리 내에 포진돼 있다.

일부 업체는 특화 매장을 여는 등 포화 시장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컨버스코리아는 지난 6일 기존 명동점을 리뉴얼해 오픈했다. 명동점은 컨버스코리아가 직진출 이후 연 첫 매장이다. 컨버스의 유통 라이선스를 갖고 있던 반고 인터내셔널이 운영했던 매장을 리뉴얼해 직접 운영한다.

컨버스 매장에서 걸어서 2분 정도 거리에는 슈마커 매장 '핫티(HOT:T·사진)'가 들어섰다. 전면 리뉴얼해 젊은층과 소통할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구성했다. 총 25여 개 브랜드를 운영하며 기존 슈마커 매장 보다 높은 가격대 제품을 선보인다. 스케이드보드존, 농구화존, 러닝존 등 카테고리로 나눠 쇼핑 편의를 높였다. 2층에 래쉬가드, 의류, 액세서리 등을 취급하는 별도 공간을 마련해 차별화했다. 명동 매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다음 달 중 코엑스몰에 추가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다.

ABC마트코리아는 명동에만 3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ABC마트 2개 점 외에 '온더스팟' 매장을 추가로 열었다. 일부에 한해 ABC마트와 다른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프리미엄급 제품 위주로 판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강남이나 주요 쇼핑몰이 들어선 곳을 비롯해 지방까지 신발 브랜드 매장이 밀집돼 있다"며 "서로 경쟁한다기 보다는 각자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건강기능식품 시장 잡아라

농심·롯데푸드 등 식품업계 잇단 진출… 시장 규모 해마다 5% 성장

경기불황으로 소비위축의 직격탄을 맞은 식품업계가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10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2013년 매출액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4조9463억원으로 매년 5%가량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강화하거나 새롭게 진출하며 위기 타개에 나서고 있다.

롯데푸드 파스퇴르는 핀란드의 기능성 식품 회사 라이시오와 손잡고 콜레스테롤 관리 건강기능식품 '베네콜'을 국내에 도입하며 건강기능식품 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다음 달 농후 발효유 형태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베네콜에 든 '식물 스타놀 에스테르'는 식물 추출 성분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기능성 원료로 인증을 받았다.

농심은 지난달 국내 최초로 개발한 '검은콩 펩타이드'를 출시하고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뛰어 들었다.

이 제품은 국산 쥐눈이콩에서 추출한 생리활성 펩타이드를 액상화 한 것으로, 식약처로부터 체지방·혈압·혈당 감소 등의 효과 인증을 받았다. 농심 관계자는 "지난 20년 간 진행한 콩펩타이드 연구의 최종 결과물"이라며 "비만·고혈압·당뇨 등 현대인들의 '대사증후군'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삼·비타민 위주였던 제품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롯데제과는 자사 초콜릿 제품인 '드림카카오'를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든 '드림카카오 플라바놀'을 이달 중순에 선보일 예정이다. 항산화 작용과 혈액순환 등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플라바놀이 든 초콜릿이다. 국내 제과업계에서 초콜릿이 원료인 건강기능식품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백화점·할인점 건강식품 코너와 약국에서 판매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앞으로 식품업체들의 신제품 출시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식음료업계, '값싼' 프리미엄 디저트 전쟁

불황에도 고급 디저트와 커피가 인기를 끌면서 식음료업체들이 '프리미엄 디저트 전쟁'을 벌이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최근 밀크티 음료를 가정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투썸 밀크티 파우더'를 내놨다. 홍차의 명산지 스리랑카산 홍차추출분말을 사용해 향이 깊고 맛이 깔끔하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홍차 티백을 우려 먹으면 더욱 풍부한 밀크티로 즐길 수 있고, 우유와 커피를 첨가하면 밀크티 카페라떼가 된다. 가격은 할인점 기준 9980원(320g)으로, 16~20잔(200㎖ 기준) 용량이다. 시중에서 5000~6000원 선인 밀크티를 10분의 1 가격으로 마실 수 있는 셈이다.

커피 유통 브랜드 어라운지는 '블렌딩 핸드드립 커피 5종'을 리뉴얼해 선보였다. 간편한 일회용 필터를 사용해 언제 어디서나 신선한 핸드드립 커피를 즐길 수 있으며 개별 포장으로 휴대가 편리하다. 대표 제품으로는 부드러운 산미와 상큼한 꽃 향기가 특징인 '젤러스 레드'와 대중적인 맛과 향의 '퓨어 화이트' 등이 있다. 어라운지 관계자는 "최고급 핸드드립 커피를 믹스만큼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며 "가격도 5개 들이 6000~9000원 선이라 커피전문점에 비해 훌륭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프랑스 전통 과자인 마카롱 사이에 아이스크림을 넣은 디저트도 인기다. 지난해 말 롯데푸드가 출시한 '라베스트 마카롱 아이스크림'은 일주일 만에 3만개 넘게 팔렸다. 디저트 매장에서 내놓는 마카롱의 약 2배 크기로 가격은 2500원이다. 세븐일레븐에서 판매한다.

/박지원기자

미샤, 서유럽 진출… 비비크림으로 독일 공략

미샤가 국내 화장품 브랜드숍 최초로 서유럽에 진출했다.

에이블씨엔씨는 최근 독일 바이에른주 잉골슈타트(Ingolstadt)에 미샤 1호점을 오픈했다고 10일 밝혔다.

잉골슈타트는 뮌헨에서 약 80㎞ 떨어진 독일남부 상공업의 중심지로 기계·정유·자동차산업 등이 발달한 곳이다.

미샤는 체코·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에서 매장을 운영 중이지만 서유럽 지역에 매장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글로벌 리서치 회사 데이터모니터에 따르면 독일 화장품 시장은 2013년 기준 151억 8000만 달러(한화 약 16조 7000억원) 규모로 유럽 내에서 가장 크다.

미샤는 베스트셀러인 비비크림을 내세워 독일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에이블씨엔씨 해외주진팀 이광섭 팀장은 "화장품본고장인 유럽에서 품질로 승부해 반드시 성과를 보이겠다"며 "독일을 거점으로 유럽 주요 국가에 추가 진출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샤는 현재 해외 28개국 130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겨울철 피부관리는 세안부터"

민감성·탈수 피부 등 타입별 클렌징 중요

겨울철에는 미세한 자극에도 피부가 예민해지기 쉬운데 민감성 피부라면 자극이 덜한 클렌징으로 피부 마찰을 최소화해야 한다.

설화수 '순행클렌징폼'은 피부 구성단위인 아미노산 유래 세정성분이 부드럽게 피부 노폐물을 제거하고 피부 수분막은 남겨, 순하게 작용하는 한방 클렌징폼이다.

표면은 번들거려 지성피부처럼 보이지만 속은 건조하고 피부 속은 당기는 이른바 '탈수 피부'가 있다. 이런 경우는 풍부한 거품으로 피부 표면은 산뜻하게 속은 촉촉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제품을 추천한다.

리리코스 '마린 소프트 포밍 클렌저'는 갈조추출물 함유 비드가 피부의 묵은 각질을 제거하고 노폐물을 깨끗이 세정해주는 클렌징 폼이다. 갈조추출물은 해조로부터 추출한 성분으로 다량의 미네랄, 비타민, 아미노산 등을 함유하고 있어 보습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진한 메이크업을 한 경우라면 클렌징 오일로 부드럽게 메이크업을 지운 후 클렌징 폼으로 이중 세안을 해야 한다. 아모레퍼시픽 '트리트먼트 클렌징 오일'은 녹차다당체가 충분한 수분을 보충해주고 코코넛 오일과 바바수버터 오일이 피부 보습막을 형성해 줘 세안 후 부족해 지는 보습력을 높여준다.

/김수정기자

명절만 되면 소화불량?

심기남 이대목동병원 교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위장장애"

설날이 다가오면서 스트레스와 과로 등으로 생기는 '명절 증후군'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에 가장 흔한 증상인 소화불량과 변비 등 명절 위장장애에 대한 얘기를 심기남(사진) 이대목동병원 위·대장센터 교수에게서 들었다.

명절 때 소화가 안 되고 변비나 설사 등의 증상이 반복해서 나타난다면 기능성 위장장애를 의심해야 한다. 기능성 위장장애는 우리나라 인구의 10% 이상에서 발병하는 흔한 질환으로 발병 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심리·정서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복부를 중심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기능성 소화불량과 하부 위장관 증상을 호소하는 과민성 장 증후군이 대표적이며 스트레스나 긴장 등이 자율신경계를 자극하면서 위의 운동을 방해해 증상이 발생한다. 특히 과민성 장 증후군은 중년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기능성 위장장애가 의심된다면 우선 과식을 피해야 한다. 또 커피나 탄산음료, 알코올 등은 위에 자극을 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다. 아울러 가벼운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이 도움이 되며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황재용기자

우편발송자동화 시스템 구축 김기덕 서울지방우정청장(오른쪽)과 전만경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관(왼쪽)이 1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전자우편서비스' 이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수작업으로 발송하던 연평균 약 40만건의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우편물이 앞으로는 자동으로 처리되게 된다. /서울지방우정청 제공

강강술래 "설 선물 우리 한우가 최고"

불고기·양념갈비·곰탕 등 최대 50%할인
3중 포장 적용… 정육세트 신선도 유지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27년의 노하우와 품격·정성을 담아 선보인 설 선물세트 가운데 중저가 한우세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강강술래는 전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sullaimall.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2만원에서 30만원 대까지 40여 종의 한우·양념갈비 선물세트를 최대 50% 할인 판매중이다.

가정간편식 한우사골곰탕 대용량세트(800ml·5팩·15인분)는 3만8800원, 중용량세트(500ml·7팩·14인분)를 3만6000원에 판매한다. 100% 한우로 우려내 맛이 진하며 레토르트 파우치로 포장해 상온 보관도 가능해 개인은 물론 기업 단체선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매장 인기메뉴인 한우불고기1호(1.5kg)는 6만원, 한우불고기2호(2.25kg) 8만원, 한우불고기3호(3kg)를 10만원에 판매한다. 100% 수작업으로 정성껏 선보인 한우양념1호(4대)는 17만원, 한우양념2호(6대) 25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한우양념(2대)과 한우불고기(1.5kg)로 구성된 한우실속2호는 14만원, 한우찜갈비1호(2.4kg·냉동) 19만원, 한우찜갈비2호(3.2kg·냉동)를 25만원에 판매한다.

한우정성1호(국거리·불고기·등심 각 0.7kg) 15만원, 한우정성2호(등심1.4kg+국거리0.7kg) 19만원, 한우명품1호(등심1.4kg·안심0.7kg) 24만원 등 프리미엄선물세트(냉장)에는 오랫동안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스치환(MAP) 포장'을 도입했다.

신선도 유지와 변질 위험을 줄이기 위해 모든 정육세트에는 열전도율이 낮아 보냉효과가 우수한 고급원단과 두툼한 단열재를 사용, 외부의 열을 이중으로 차단함으로써 아이스팩의 냉을 오래 유지시키는 3중 포장방식을 적용했다. /박지원기자 pjw@

생보재단, 경북 칠곡군에 생명보험어린이집 건립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하 생보재단)은 10일 경상북도 칠곡군과 생명보험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생보재단이 자치단체에서 제공한 토지에 어린이집을 건립 후 기부하고 다시 위탁운영을 맡는 '민·관 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생보재단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신리에 50명을 보육할 수 있는 경북칠곡생명보험어린이집을 개원한다.

앞서 생보재단은 지난 2012년부터 서울 구로·종로·성북구, 경기 오산·이천·성남·광명시 등에 총 10개의 어린이집을 건립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개최된 경북칠곡 생명보험어린이집 건립 MOU체결식에서 유석쟁(가운데 왼쪽) 생보재단 전무, 백선기(가운데 오른쪽) 경북칠곡 군수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제공

유석쟁 전무는 "생명보험어린이집은 민·관 협력사업의 선진모델로 각광받고 있는 만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훌륭한 어린이집은 건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소록도서 뜻깊은 봉사활동 했어요"

박준뷰티랩, 부산괴정점·충주점 잇따라 오픈

박준뷰티랩이 2013년 연말에 이어 올해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 동안 소록도 봉사활동을 펼친 것이다.

매월 1주일씩 프로 박준이 소록도를 찾아 이미용 봉사활동을 한 인연으로 전지점 원장과 디자이너도 참여했다. 매번 참여율과 열기가 높다.

프로박준은 매달 커트 봉사를 하고 있지만 전지점에서 참여할 때는 커트는 물론 펌과 염색 등으로 어르신들이 원하는 시술 봉사를 벌인다.

시술을 마친 어르신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따뜻한 차와 좋아하는 사탕을 봉사활동 참여자에게 전하기도 했다.

한편 박준뷰티랩은 지난 1월 부산괴정점과 충주점을 오픈했다.

올해 첫 오픈매장인 부산괴정점은 부산괴정역과 가까운 거리인 전통시장 옆에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고객의 동선과 편안함을 생각한 실내 인테리어는 물론 타 살롱과 다른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현재 1+1 할인 이벤트를 벌인다.

박준뷰티랩 충주점은 VIP 고객을 위한 시술실이 따로 마련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충주점은 2월 펌 또는 염색 시술시 40%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김수정기자 ksj0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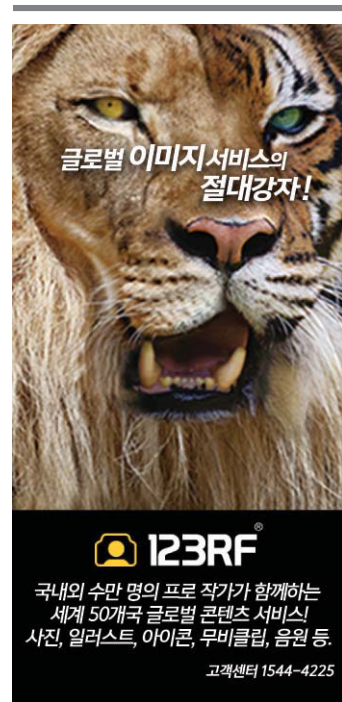
안전보건공단 안전제품 개발 자금 지원

방호장치나 보호구 제조업체에 제품의 품질 수준과 성능 개선을 위한 비용이 지원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안전인증센터가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업체 자금지원'을 통해 관련된 연구·개발과 시험장비 구매를 하는 사업장에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방호장치와 보호구 제조업체로 공단에 등록한 사업장이면 가능하다. 연구·개발 자금은 소요비용의 50% 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시험장비 구매 자금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3월 6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한 후 3월 말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방호장치는 프레스의 끼임사고 방지와 보일러의 폭발 방지 등의 안전장치를 말하며 보호구는 안전모나 안전대, 방독마스크와 같이 근로자의 재해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품을 말한다. 문의: 052)7030-933·ha545@kosha.or.kr /황재용기자

"취업관문 넘는데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이국명 기자의 취업토크

김기석 취업학교 팀장

'취업학교' 취업성공률 64% '화제'
전문 맞춤 컨설턴트 '담임제' 눈길
100% 온라인 교육…수강료 공짜

"3개월만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취업관문을 넘을 수 있습니다."

혹시 한 달에만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비용을 요구하는 취업 컨설팅 광고에 속았던 경험이 있는 구직자라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고개를 내저을 것이다. 업체의 요구에 따라 엄청난 시간과 돈을 들여 열심히 스펙을 쌓았지만 면접조차 보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취업컨설팅 전반에 걸친 신뢰도가 땅에 추락하고 있다는 이야기마저 나올 정도다. 최근 이처럼 혼탁한 시장에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는 서비스가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취업학교'(school.incruit.com)가 주인공이다.

◆교육·컨설팅·일자리 매칭까지

지난해 8월 처음 오픈한 '취업학교'는 중소기업 취업준비생의 고속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온라인교육, 컨설팅, 일자리 매칭 등 3단계 프로그램을 3개월 동안 진행하는 '삼삼프로그램'이 특징이다. 온라인으로만 이뤄지는 취업 컨설팅은 인크루트의 '취업학교'가 처음이다.

취업학교는 '대기업만 고집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입학할 수 있다. 이외에 복잡한 입학조건은 없다. 최소한의 기본요건인 이력서과 자기소개서만 제출하면 된다.

취업학교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석 팀장은 "온라인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받기 때문에 알바, 인턴 등 생업을 하면서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며 "무엇보다도 3개월 교육에 비용이 전액 무료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전액 무료지만 탄탄한 교육

온라인인데다 무료라는 점에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까. 김 팀장은 취업학교의 문을 두드린 모든 구직자에게 '담임선생님' 역할을 하는 담당 컨설턴트가 배정되기 때문에 기존 취업컨설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자신했다. 취업학교에 입학하면 구직자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무역·IT·사무 등 전문 영역에 따라 컨설턴트가 일대일 맞춤 컨설팅을 해준다. 구직자의 온라인 교육현황을 체크하고 메일·쪽지·전화 등으로 독려하는 것도 담당 컨설턴트가 진행한다. 특히 스펙을 더 쌓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구직자의 현재 상태에서 가장 뛰어난 역량을 발견해 적합한 기업을 추천해주는 것이 취업학교만의 자랑거리다.

김 팀장은 "3개월 교육기간 컨설턴트는 구직자 한명 당 평균 20회 전화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덕분인지 취업학교 수료자들의 취업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기대이상이다. 3개월 수료를 정상적으로 마친 356명중 무려 227명이나 취업에 성공했다. 취업성공률이 64%에 달한다. 수료자들이 입사한 기업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알짜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샘표식품, 한국정보시스템, 이마트 등이 대표적이다.

◆26일까지 5차 모집 중

김 팀장은 "최근 한 구직자로부터 '대기업을 포기했더니 대기업 입사의 길이 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실제로 대기업에 입사하는 수료생이 증가해 고민 아닌 고민을 하고 있다"고 환한 웃음이 지었다.

취업학교의 성과가 알려지면서 기업들의 문의전화도 늘어나고 있다. 취업학교 수료생중 적합한 인재를 추천해달라는 요청이다. 취업시장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인다는 이야기다. 취업학교는 구직자와 기업의 늘어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5차 입학생을 26일 오후 5시까지 모집중이다.

물론 취업학교에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4차까지 지원했던 3800여명 중 무려 2500명이 넘게 기본적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했다.

김 팀장은 "취업이 힘들다고 한탄만 할뿐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구직자들이 많아 안타깝다"며 "손만 내밀면 열의를 다해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취업학교의 문을 꼭 두드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기자 son@

설 코앞인데 직장인 지갑 '꽁꽁'

명절 지출액 3년 전보다 37% 감소

불황 한파가 직장인 설날 지갑을 얼어 붙게 만들었다.

잡코리아가 10일 전국 성인남녀 5764명을 대상으로 '올해 설날 계획'에 대해 설문한 결과, 설날 예상 경비는 평균 2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가 2012년 진행한 같은 조사에서는 예상 명절 지출액이 46만원이었다.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3년 사이 설날 경비가 37%나 감소한 셈이다.

설날 지출 항목별로는 '세뱃돈·용돈'(34.8%)이 가장 많았다. 이어 '설날 음식 준비 비용'(23.4%), '설날 선물'(22.8%), '교통비'(10.7%) 순이었다. 직장인들이 예상하는 세뱃돈 지출액은 20만1456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직장인 2명 중 1명은 명절 상여금과 유급 휴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의 46.5%는 '상여금을 못 받는다'고 답했으며 '아직 모른다'(27.6%)는 대답이 뒤를 이었다. '상여금을 받는다'는 비율은 25.9%로 답변 비중이 가장 적었다. 상여금 비용으로는 '20만원 미만'(32.7%) 응답이 주였다.

아울러 응답자의 55.8%는 유급 명절 휴가를 누리지 못한다고 답했다. 유급 명절 휴가 혜택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는 '조기 퇴근'(18.2%) 비중이 제일 높았다. 이어 '1일 지급'(15.8%), '2일 지급'(10.5%) 순이었다.

직장인 3명 중 1명은 과도한 업무 때문에 연휴에도 근무할 예정이었다. 응답자의 33.1%는 '설 연휴에 출근한다'고 답했다. 명절 출근 이유 1위는 '업무 특성상 연휴 근무자가 필요해서'(59.8%)였으며 2위는 '일이 많아서'(29.9%)가 차지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300장 타일에 담은 다문화의 꿈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가 최근 선데이토즈와 함께 서울시 구로구의 다문화 대안학교 '지구촌학교'에서 벽화 꾸미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50명의 양사 임직원과 지구촌학교 어린이들은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언어와 문화적 수용성이 뛰어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300여 장의 타일에 전세계 국기를 그렸다. /스마일게이트 제공

상반기 공채 겨냥 '취업 토크 콘서트'

YBM시사닷컴 27일 개최

YBM시사닷컴이 상반기 공채 합격 전략을 공유하는 행사를 연다.

YBM시사닷컴은 27일 오후 4시부터 3시간 동안 강남 YBM어학원에서 '취업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참가 접수는 토익인강 사이트 YBM클래스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취업 토크 콘서트는 크게 두 세션으로 나뉘며 1부에서는 올해 취업 동향과 인문학 평가 대응을 다룰 예정이다.

2부에서는 합격하는 자기소개서의 특징과 면접에서 피해야 할 사항을 주제로 한다. 아울러 참석자들의 고민을 실시간으로 상담해주는 행사도 마련된다.

/장윤희기자

“묘령의 여인愛 푹 빠졌어요”

'조선명탐정2'서 미스터리 히사코 열연 이연희

남장부터 게이샤까지 '팔색조' 변신
편안한 모습으로 다양한 연기하고파
성격은 낯가림 있지만 때론 털털해요

이연희(27)하면 자연스레 '청순함'이 떠오른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그녀가 보여준 행보를 보면 더 이상 그녀를 청순함만으로 설명할 수 없을 것 같다. 영화 '결혼전야'에서 보여준 편안함, 그리고 드라마 '미스코리아'를 통해 만날 수 있었던 열정과 집념 가득한 캐릭터는 이연희의 작지만 의미 있는 연기 변신이었다.

11일 개봉하는 '조선명탐정: 사라진 놉의 딸'(이하 '조선명탐정2')은 이연희의 보다 다양한 변신을 접할 수 있는 영화다. 불량은괴 유통 사건과 동생을 찾아달라는 한 소녀의 의뢰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명탐정 김민(김명민)과 서필(오달수) 콤비의 이야기를 그렸다. 이연희는 김민과 서필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묘령의 여인 히사코 역을 맡았다.

이연희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히사코의 캐릭터였다. 히사코는 영화 속 사건의 키를 쥔 인물이다. 김명민·오달수 콤비의 연기 앙상블이 코미디라는 한 축을 담당한다면 이연희는 미스터리로 가득한 히사코를 통해 미스터리 추리물이라는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했다. 매 등장 장면마다 존재감을 남기는 인물이라는 점도 배우로서 도전의 대상이 됐다.

“캐릭터에 대한 애틋함이 있어야 애착이 생겨요. 그래야 연기할 때도 이해가 잘 되고요. 시나리오를 읽을 때 히사코가 많이 안쓰러웠어요. 자연스럽게 생겨난 애틋한 마음으로 캐릭터에 접근했죠. 다른 인물들과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극에 무게감을 주는 역할이라는 점은 부담이 되기도 했어요. 화기애애한 현장 분위기 속에서도 촬영에 들어가면 늘 히사코의 감정에 빠져야 했죠. 연기에 많이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등장할 때마다 서로 다른 의상과 분장으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또 다른 즐거움이었다. 남장부터 단아함과 화려함을 오가는 게이샤의 모습, 그리고 한복을 입은 단아한 모습까지 이연희는 그야말로 '팔색조'로 변신했다.

“기모노도 8벌이나 됐어요. 처음 입어봤는데 꼿꼿하게 자세를 유지해야 해서 초반에는 좀 힘들더라고요. '게이샤의 추억' '사쿠란' 같은 영화를 참고했어요. 기모노도 입고 남장도 하고 여러 가지로 재미있었어요(웃음).”

청순한 이미지 때문에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연희는 “집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는 걸 더 좋아한다”고 말할 정도로 활동적이다. 낯가림이 있기는 하지만 친해지면 상대방을 편하게 대하는 털털함도 있다. 운동을 좋아해서 최근에는 승마도 배우고 있다는 그는 이번 영화에 대한 아쉬움 중 하나로 액션을 꼽았다.

“촬영 들어가기 전에 감독님께 액션도 시켜주면 잘 할 자신 있다고 했어요(웃음). 그런데 정작 히사코의 등장 장면에서 액션 신을 만들 수 없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아쉬웠죠.”

이연희는 “데뷔 초에는 청순한 이미지가 있었지만 하나의 이미지에 치우치기 싫어서 다양한 작품을 선택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대중이 자신에게 바라는 기대를 갑작스럽게 떨쳐내고픈 마음은 없었다. '파격'보다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한 변신이 그녀의 필모그래피를 채우고 있다.

“스릴러처럼 예상을 깨는 캐릭터도 하고 싶어요. '나를 찾아줘'의 로자먼드 파이크를 보면서 소름 돋는 역할이지만 한 번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스로 선택한 배우의 길이기에 후회한 적은 없어요. 후회도 안 하려고 하고요. 아직까지는 연기에 더 많이 집중하고자 노력해요. 한 살씩 나이를 먹을수록 책임감도 커지고요. 곧 다가올 30대에는 보다 편안한 모습으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싶어요.”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김상곤)·디자인/김아람

star bag

일본서 오리지널 싱글 발매

7인조 그룹 **비투비**가 다음달 25일 일본에서 첫 오리지널 싱글 '미래'를 발표한다. 아라시·AKB48 등 일본 가수들의 히트곡을 만든 타다 신야·이쿠타 마신이 작곡에 참여했다. 안타까운 헤어짐을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이들을 위로하는 비투비의 '힐링송'이다.

아시아 팬미팅 단독 개최

그룹 제국의 아이들 **임시완**이 아시아 주요 6개 도시에서 팬미팅을 연다. 토크는 물론 아이돌그룹 멤버답게 춤, 노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팬미팅은 다음달 7일 일본 도쿄를 시작으로 15일 중국 상하이, 21일 서울, 28일 홍콩, 4월 18일 중국 광저우, 5월 2일 대만에서 진행된다.

배두나와 한솥밥 먹는다

신예 배우 **박나린**이 배두나, 고원희가 소속돼 있는 샛별당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했다. 박나린은 2014년 중국가수 리보샤오의 뮤직비디오로 데뷔했다. 이후 8등신 몸매와 세련된 외모, 독특하고 신비로운 매력으로 광고계 샛별로 주목받았다.

듀엣곡 '봉숭아 물들다' 발표

윤상현·메이비 부부가 듀엣곡 '봉숭아 물들다'를 공개했다. '봉숭아 물들다'는 메이비의 상큼한 목소리와 윤상현의 부드러운 음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감미로운 멜로디의 미디엄 템포 곡이다. 메이비가 작사했으며 서로에게 빠져드는 연인의 마음을 봉숭아 꽃잎에 물드는 것에 비유했다.

드라마·뮤지컬에 녹아든 현실인식

'징비록' '로빈훗' '노트르담드파리' 등 공감

KBS1 광복70주년 특별기획 대하드라마 '징비록', 뮤지컬 '로빈훗' '노트르담드파리'가 핍박 받는 약자를 통해 참된 권력을 고민한다.

'징비록'은 조선 최고의 정치가 서애 류성룡이 임진왜란 중 남긴 기록이다. '지난 날의 잘못을 꾸짖고 후대의 우환에 대비한다'는 의미이며 중국과 일본 통치자들에게 명저로 평가 받고 있다. 드라마 '징비록'은 류성룡의 개혁 정책을 통해 오늘날 정치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말한다. 류성룡으로 분한 김상중은 "진정한 리더는 책임질 줄 아는 사람, '같이 가자'고 할 수 있는 사람,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라며 "작품을 통해 진짜 리더의 모습이 그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징비록'은 오는 14일 첫 방송될 예정이다.

뮤지컬 '로빈훗'은 불의에 맞서는 로빈훗과 그를 통해 진정한 왕으로 성장하는 필립 왕세자의 이야기다. 동명의 독일 뮤지컬을 원작으로 한다. 특히 세금이 올라 도적이 될 수밖에 없는 백성의 원성, 부자들을 약탈하는 로빈훗의 모습은 증세와 복지 논쟁이 한창인 현실과 맞물려 관객의 몰입도를 높인다. 로빈훗 역을 맡은 이건명은 "타이밍이 재미있다"며 "대사 중 세금을 집어 넣었는데 의도치 않게 현실과 맞아 떨어졌다. 관객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 관객에게 묻고 싶다"고 '로빈훗'의 관전포인트를 설명했다. 3월 29일까지 디큐브아트센터에서 공연된다.

뮤지컬 '노트르담드파리'는 꼽추 콰지모도와 집시 에스메랄다의 애절한 사랑을 큰 축으로 한다. 그러나 작품에서 꼽추와 집시는 추방돼야 하는 '이방인'에 불과하다. 성직자 프롤로, 근위대장 페뷔스에 의해 이용당하다 버려지는 존재다. 동화 같은 사랑이야기 속 계층간 비극이 '노트르담드파리'의 울림을 더 깊게 한다.오는 27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온에어 야간비행' 日서 인기몰이

그룹 유키스 케빈, 초신성 윤학, 틴탑 천지가 뮤지컬 '온에어 야간비행'으로 일본 관객을 사로잡았다.

'온에어 야간비행'은 한·일수교 50주년을 기념해 한국과 일본이 공동 주최한 작품이다. 지난 5일 일본 도쿄 제프 블루 시어터 롯본기에서 공연을 시작했다.

케빈·윤학·천지는 한류를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 멤버로서 '온에어 야간비행' 남자 주인공 제이 역을 맡았다. 일본 여배우 마나카 아유·와타비키 사야카와 한일 청춘 남녀의 풋풋한 사랑을 이야기한다.

뮤지컬 제작사의 한 관계자는 "노래와 연기력을 모두 갖춘 한국 아이돌과 일본 여배우의 탄탄한 호흡, 관객이 실시간으로 작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며 "총 16회 공연 중 10회 이상이 매진됐다. 특히 케빈은 전석 기립박수를 이끌어냈다"고 소개했다. /전효진기자

'악역' 김성균, 이번에는 피해자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힘들어"

배우 김성균(사진)이 영화 '살인의뢰'(감독 손용호)를 통해 생애 첫 피해자 역할에 도전한다.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로 영화에 데뷔한 김성균은 '이웃사람'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 '우리는 형제입니다' 등의 영화와 드라마 '응답하라 1994'를 통해 악역과 순정남, 그리고 코믹 연기까지 다양한 모습을 넘나들며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줬다.

신작 '살인의뢰'에서는 연쇄 살인마에게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남자 승현 역을 맡았다. 평범한 한 남자가 고통스러운 사건을 통해 처절하게 변해가는 과정을 깊은 감정 연기와 체중감량 등의 외적 변신으로 설득력 있게 표현했다.

김성균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피해자 역할을 맡았다. 혼자 있을 때 문득문득 승현의 감정이 떠올라 힘들었다.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며 연기의 고통을 토로했다. 같이 호흡을 맞춘 배우 박성웅은 "(김성균은) 자유자재로 변화하는 고무찰흙 같다"고 말했다.

희대의 연쇄살인마에게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범죄 스릴러 '살인의뢰'는 다음달 12일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solanin@

온라인 핫 이슈

레이먼킴·김지우 부부, 딸 첫 공개

레이먼킴·김지우 부부가 딸 김루아나리를 최초 공개했다.

11일 새벽 12시20분 '현장토크쇼 택시'에선 부모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 레이먼 킴·김지우 부부가 출연했다.

두 사람은 딸 김루아나리를 소개했다.

'루아나리'라는 이름은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대지의 여신 루아와 레이먼 킴 친누나의 아명인 순수 한글 나리를 함께 사용한 것이다.

레이먼 킴은 이날 "딸이 엄마 닮는 게 인생 최고의 목표"라고 해 잉꼬부부의 면모를 보였다. /전효진기자 jeonhj89@

도희 그룹활동 중단…연기 계속

걸그룹 타이니지가 국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

소속사 지앤지프로덕션 측은 10일 "2012년 데뷔한 타이니지가 여러 장의 앨범을 냈지만 잘 안돼 회사 차원의 고민이 컸다"며 "국내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타이니지 멤버 중 도희(사진)는 연기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른 두 멤버인 민트와 제이민은 태국에서 활동한다.

가요계에서는 드라마 '응답하라 1994'로 배우로 떠오른 도희가 타이니지 활동을 거부하고 연기 활동을 원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장병호기자

'최장수 아이돌' 신화 온다

26일 새 앨범 '위' 음원 공개…내달 콘서트

'국내 최장수 아이돌 그룹' 신화가 팬들 곁으로 돌아온다.

신화는 오는 26일 정규 12집 '위(We)'를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 공개한다.

이어 다음달 3일엔 4만장 한정 '스페셜 에디션' 앨범과 5일 일반판 '땡스 에디션'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다.

컴백을 앞둔 신화는 지난 3일 새 앨범 수록곡 '메모리(Memory)'와 재킷 사진을 공개하며 팬들의 기대감을 모았다.

약 1년 9개월 만에 가요계에 복귀하는 신화는 새 앨범에서 한층 완성도 높은 음악과 스타일리시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각오다.

한편 신화는 다음달 21~22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데뷔 17주년 기념 콘서트 '위'를 개최한다. /김지민기자 langkim@

우리의 혁명은 숲에서 시작된다
ROBIN HOOD
2/10 2PM. LAST TICKET OPEN
DAS MUSICAL
로빈훗
2015.1.23 - 3.29 디큐브아트센터
유준상 서영주 이건명 홍경수 엄기준 조순창 박진우 박성환 규현 양요섭 서지영 김아선 김여진 다나 외
프로듀서 김선미 연출 왕용범 음악감독 이성준 안무 서병구 조명디자인 민경수 무대디자인 서숙진 음향디자인 권도경 영상디자인 송승규 의상디자인 한정임 분장디자인 양희선 소품디자인 김상희
Music: MARTIN DOEPKE Book: ANDREA FRIEDRICHS & HANS HOLZBECHER Lyrics: ELKE SCHLIMBACH & GRANT STEVENS Orchestrations: HUMMIE MANN & MARTIN DOEPKE
Producer Original Production: ANDREA FRIEDRICHS Worldwide General Management: WILLEM METZ MANAGEMENT
WMM
주최 SBS 투자 하나투어 ISU 이수창업투자 제작 (주)엠뮤지컬아트 제작지원 KIBO 기술보증기금 예매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YES24.COM 티켓 (1544-6399) 하나 Free 티켓 (1566-6668) 문의 (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CLIP service (1577-3363) 홍보 SHOWHOLIC

기성용 헤딩골 EPL도 인정

24라운드 베스트 11

복귀하자마자 헤딩 동점골을 꽂아 넣은 기성용(26·스완지시티)이 지난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 중 하나로 인정받았다.

기성용은 10일(한국시간) 프리미어리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24라운드 베스트 11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2015 호주 아시안컵에서 6경기 선발로 나서 5경기를 풀타임 소화한 기성용은 스완지시티로 복귀하자마자 8일 선덜랜드전에 출격했다.

기성용은 89분을 뛰면서 91%의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다. 특히 0-1로 뒤지던 후반 21분 극적인 헤딩 동점골을 터뜨려 팀을 패배 위기에서 구해냈다.

공격수 부문에는 토트넘 홋스퍼의 해리 케인과 번리의 대니 잉스가 선정됐다.

미드필더에는 기성용 외에 데이비드 메일러(헐시티), 달레이 블린트(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조 레들리(크리스털 팰리스), 크리스 브런트(웨스트브로미치)가 이름을 올렸다.

수비수로 필 자기엘카(에버턴), 요시다 마야(사우샘프턴), 알베르토 모레노(리버풀)가 뽑혔고, 훌리안 스페로니(크리스탈 팰리스)가 최고 활약을 펼친 골키퍼로 선정됐다. /김민준기자

김용희 감독 "백인식 시즌 기대"

미국 플로리다에서 1차 스프링캠프를 마친 SK 와이번스 김용희(60) 감독이 투수 백인식(28·작은 사진)을 올시즌 기대주로 꼽았다.

SK는 10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베로비치에서 지난달 15일부터 진행해 온 1차 스프링캠프를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김 감독은 이날 "플로리다 캠프만 보자면 100% 만족하고, 전체를 봤을 때는 70%정도 올라왔다"며 "나머지 30%는 일본 오키나와 2차 캠프와 시범경기를 채워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차 캠프의 최우수선수(MVP)로 투수 가운데 백인식, 야수 가운데 신인 포수 이현석을 꼽았다.

김 감독은 "백인식은 지난해 성적이 좋지 않아 우려했는데 기량이 많이 발전했다"며 "구위가 좋았던 2013년보다 더 발전한 모습이어서 올해 기대가 된다"고 설명했다. 백인식은 올 시즌 SK의 유력한 5선발 후보 가운데 한 명이다.

이현석에 대해서는 "성실한 것은 물론이고 분위기 메이커 역할까지 잘 수행했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또 "타격 연습량을 늘렸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효과적이었고, 선수 전원이 체력을 많이 끌어올렸다"며 "자발적인 체력 단련이 이번 캠프에서 가장 큰 수확이라고 본다"고 자체 평가했다.

외국인 선수와 관련해서는 "밴와트가 지난해 기량을 잘 유지하고 있고, 켈리와 브라운이 평균 이상의 기본 기량을 갖춰 만족하고 있다. 오키나와 캠프에서 경기 감각을 빨리 찾도록 신경을 쓸 예정"이라며 용병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SK 선수단은 11일 하루 휴식을 취하고 12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2차 스프링캠프 장소인 일본 오키나와로 떠난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김용희 SK 와이번스 감독이 미국 플로리다에서 진행된 스프링캠프에서 잠수함 투수 박종훈의 훈련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SK와이번스 제공

SK 美 플로리다 1차 스프링캠프 완료…"선수들 체력 향상 흡족"

'아름다운 도전' 장애인동계체전 열기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고 있는 제12회 전국 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열기를 더하고 있다. 10일 오전 강원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에코 슬로프에서 열린 알파인 스키 남자부 좌식 부문에서 한상민(서울)이 힘차게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세영 세계랭킹 23위 껑충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퓨어실크-바하마 클래식에서 연장전 접전 끝에 데뷔 첫 승을 달성한 김세영(22·미래에셋·사진)이 세계랭킹을 큰 폭으로 끌어올렸다.

김세영은 9일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3.24점을 받아 지난주보다 17계단 뛰어오른 23위에 자리했다.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8)가 지난주에 이어 1위(9.76점)를 유지한 가운데 2위 박인비(27·KB금융그룹·9.51점)는 리디아 고와의 점수 차를 더욱 좁혔다.

3~5위는 스테이시 루이스(미국·8.60점), 펑산산(중국·6.29점),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5.86점)이 지켰다. /김민준기자

"지소연 FIFA 발롱도르 탈 수 있어"

첼시 여자팀 감독 극찬

'지메시' 지소연(24·첼시 레이디스)이 에마 헤이스 감독의 극찬을 받았다.

잉글랜드 여자축구 첼시 레이디스를 이끌고 있는 헤이스 감독은 10일(한국시간) 영국 스카이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지소연이 이렇게 계속 해나간다면 언젠가 그녀가 국제축구연맹(FIFA)-발롱도르(Ballon d'Or)를 받는다고 해도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 아이낙 고베에서 뛰던 지소연은 지난해 첼시 레이디스로 이적, 19경기에서 9골을 뽑아내 새 팀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하위권이던 첼시 레이디스는 지소연 합류 이후 준우승으로 성적이 급상승했다.

헤이스 감독은 "지소연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며 "아직도 발전할 수 있는 나이고, 수비적으로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애정을 드러냈다.

이어 "지소연은 경기를 조율할 수 있는 훌륭하고 젊은 플레이메이커"라며 "지난해 체력을 강조하는 잉글랜드식 플레이 스타일에 적응했기 때문에 올해가 더욱 기대된다.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다면 지소연이 FIFA 발롱도르를 수상한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준기자

캣우먼

임경선 칼럼니스트
askcatwoman@empal.com

나와 '급'이 다른 남자를 짝사랑하고 있어요 바꿔도 좋아하지 않아…더 나은 사람 되길

Q Hey 캣우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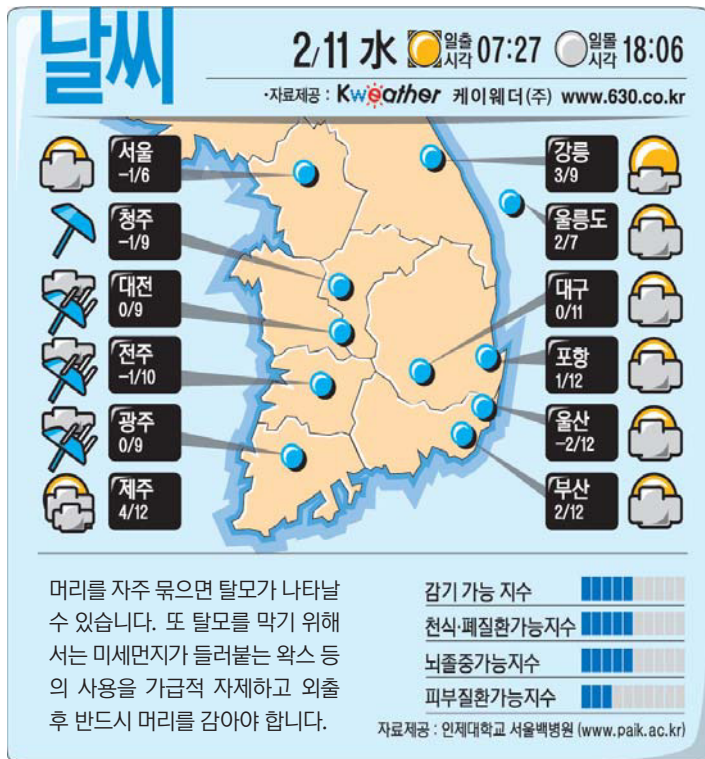
28살 여자인 저는 선배 오빠를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잘 생겼고, 공부 잘 하고, 집안도 좋습니다. 반면 저는 여태 연애도 한 번 못해봤고 오빠는 저를 동생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참 회의감이 드는 게 사람은 '급' 이 있어 그 '급'을 넘기 참 힘들다는 거예요. 결국 포기해야 하는 건 알지만 제 평생 이런 사람 못 만날 것 같아 쉽게 포기가 안 돼요. 직업 특성상 소위 말하는 '사' 자 직업의 남성은 아마도 어리고 예쁜 여자를 찾을 테니까요. 괜히 어리고 예쁜 여자애들 보면 '공부 따윈 필요 없으니 그냥 저렇게 예뻤으면 오빠랑 잘 됐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호두강정

A Hey 호두강정!

역시 머리가 좋으시네요. 그 남자가 집안이 안 좋다면 같은 직종의 커리어 지향 여자와 파트너십형 결혼을 원할지 모르지만 소위 표면적으로 모든 걸 가진 남자들은 대개 자기한테 온순하고 살가워서 자신의 색으로 마음껏 물들일 수 있는 곱상한 어린 여자를 배우자로 맞이할 확률이 높죠.

어쨌거나 지금 20대 때는 외모나 어린 나이가 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30대, 40대에 가서는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인품이나 지성, 사회적 경력 같은 것이 상상 이상으로 힘을 넘어 그 사람의 매력이 됩니다. 그 어리고 예쁜 것만이 다인 여자들은 아예 더 이상 만날 일 없는, 룰과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살게 될 거라는 말이지요.

저는 '급'이라는 것은 여자인 내가 남편의 사회적 지위로 규정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20대 연애시장의 '급'은 어차피 신기루 같은 것이고 장기적으로 아무런 영향가가 없습니다. 나는 나대로 더 나은 사람이 돼가면 됩니다. 좋아하는 남자가 바라는 대로 나를 바꾼다고 해서 그가 나를 좋아할 것도 아닙니다.

'평생 이런 사람 다시는 못 만난다'가 맞는 말이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내가 나를 더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테니깐요.? /캣우먼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7	4				
4		8		3	5	7	2	
	3	7	2					
	4	6						
8	9						4	6
						8	5	
					2	3	8	
	8	3	5	9		6		4
				8	3			

2				6			8	
	9	5		7	8	1		
		6						4
8					5	9		
	3		6		9		1	
		9	3					8
1						8		
		3	8	2		5	7	
	5			3				2

스도쿠 정답

9	2	1	7	4	8	5	6	3
4	6	8	9	3	5	7	2	1
5	3	7	2	1	6	4	9	8
1	4	6	8	5	9	2	3	7
8	9	5	3	2	7	1	4	6
3	7	2	1	6	4	8	5	9
6	1	9	4	7	2	3	8	5
2	8	3	5	9	1	6	7	4
7	5	4	6	8	3	9	1	2

2	1	4	5	6	3	7	8	9
3	9	5	4	7	8	1	2	6
7	8	6	1	9	2	3	5	4
8	6	1	2	4	5	9	3	7
4	3	7	6	8	9	2	1	5
5	2	9	3	1	7	6	4	8
1	7	2	9	5	4	8	6	3
9	4	3	8	2	6	5	7	1
6	5	8	7	3	1	4	9	2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24세 차 사업가와 인연 깊어져도 될까요 나이 많은 남자와 연분 있지만 신중해야

여자 90년 12월 03일 양력 새벽 04:00
남자 66년 09월 04일 양력 오후 01:00

Q 안녕하세요. 사주 속으로 칼럼을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연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번 상담은 도움이 많이 되어 감사합니다. 우연히 알게 된 분인데 저는 취업을 해야 하는 시점이고 이 분은 사업가십니다. 함께 일하거나 인연이 좀 더 깊어져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여자 대 남자로 궁합이 어떤지 여쭈어봅니다.

A 남녀 공히 사주에 비견겁재가 많으면 배우자가 많기도 하며 이혼을 하기도하지만 선후배관계에서는 상당히 배려하는 사주가 됩니다. 여하튼 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16년 연하와 결혼하여 잘 사는 사람도 있으며 보통 12년 연하의 띠 동갑도 많다고 봅니다. 외국에서 63살 차이가 있는 부부로서 석유재벌인 하워드마셜과 플레이보이의 모델인 안나 니콜스미스가 있는데 결혼 당시 89세와 26세였습니다. 마셜이 고령이라 90세 때 사망했고 안나는 유산상속으로 법적 분쟁을 벌이다가 약물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피카소의 7번째 여인인 자클린 로크는 50세연상인 피카소와 결혼을 했는데 피카소가 사망한 후 정신질환으로 권총 자살을 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연령대의 문제와 더불어 사회적 위치가 문제가 된 경우이긴 하나 귀하의 경우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었으므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나이차는 만남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유부남이라면 사정은 다르겠지요. 사회에서 보는 시각이 걱정 되신다면 진지하게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선후배로 나이차가 많다는 것은 살아온 날의 지혜가 묻어있고 인생을 경험해본 오랜 시간이 있기에 젊은 사람들의 경험하지 못한 시간이 있음을 뜻하며 그 소중함을 이어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랑이라면 귀하는 노랑(老郞:나이 많은 신랑)과 인연이 있으나 사람의 상처에서는 일반사람들에 비해 탕화(湯火)로 때때로 자신을 비관하거나 감정의 변화가 심해 주변의 근심을 사기도 합니다. 건강상 문제가 생기기도하고 원활한 생활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궁합을 보기까지 목적이나 동기가 무엇인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2월 11일 (음 12월 23일) 사주스타(www.sajustar.com) 060-300-8400

60년생 주위 사람의 겉과 속이 다르니 가슴만 아픕니다. **72년생** 무리한 확장보다는 실속을 더 챙기세요. **84년생** 가까운 사람이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96년생** 오랜 친구와 연인운이 있습니다.

49년생 노력이 빛을 보고 성공하게 됩니다. **61년생** 처음은 어렵지만 갈수록 좋아집니다. **73년생** 거래나 소송은 미루어야 승산이 있습니다. **85년생**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니 기쁜 하루입니다.

50년생 만족할 만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62년생** 신중하게 추진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74년생** 욕심을 버리면 크진 않아도 순탄하게 이루어집니다. **86년생** 의연한 태도를 유지해야 길하게 됩니다.

51년생 작은 것은 양보하고 화해하는게 좋습니다. **63년생** 내 생각대로 의연하게 대처하세요. **75년생** 배우자나 동업자를 잘 돌보아 주면 복이 옵니다. **87년생** 진로문제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52년생 원하던 곳에 투자하면 소득이 있습니다. **64년생** 경쟁자가 많으니 철저히 준비하세요. **76년생** 상대에게 먼저 연락이 오면 용서해 주세요. **88년생** 실패하더라도 다음을 위해 포기하지 마세요.

53년생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65년생** 사업의 흐름이 바뀌니 새로운 것이 좋아 보입니다. **77년생** 방황을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세요. **89년생** 많은 이들과 함께 어울리면 복이 있습니다.

54년생 뜻밖의 귀인이 도움을 줍니다. **66년생** 지금보다는 다음 기회를 기다리세요. **78년생** 뜻대로 일이 안풀리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90년생** 이성운이 좋더라도 너무 늦게 귀가하지는 마세요.

55년생 아랫사람을 챙겨주면 도움을 받게 됩니다. **67년생** 희망하는 일이 잘 이루어집니다. **79년생** 혼자 도모하지 말고 여럿이 함께 의논하세요. **91년생**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 몸부터 돌보세요.

56년생 여행이나 출장은 뒤로 미루는게 좋습니다. **68년생** 뜻 대로 안풀리니 변화가 필요합니다. **80년생** 힘들더라도 계속 유지하면 곧 기회가 찾아 옵니다. **92년생** 외출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57년생 큰 일을 하려면 작은 근심은 버려야 합니다. **69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있지만 바라던 대로 이루어집니다. **81년생** 모든 것이 길하니 운이 좋습니다. **93년생** 운도 훤하고 마음도 훤합니다.

58년생 별 것 아니라고 지나치면 병이 될 수 있습니다. **70년생** 욕심만 줄이면 만사형통입니다. **82년생** 겸손하게 처신하고 내실을 다지는게 좋습니다. **94년생** 소신을 굽히지 말고 계속 추진하세요.

59년생 전화위복을 실감하는 하루입니다. **71년생** 돈과 시간만 낭비하니 싸우지 말고 화해하세요. **83년생** 일보다는 건강을 먼저 챙기세요. **95년생** 너무 큰 꿈보다는 현실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제주 찾은 인공부화 황새 천연기념물 제199호인 황새 한 마리가 제주시 한경면 금등리 해안에서 발견됐다. 이 황새는 지난 2013년 일본 황새복원센터에서 인공부화해 방사됐다. /연합뉴스

범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구조금

1주일 이상 입원·2개월 이상 치료시 '중상해' 판정

범죄로 인해 몸이 다친 피해자뿐 아니라 정신적 질환에 시달리는 피해자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법령을 정비했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의 혜택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는 범죄 때문에 숨지거나 크게 다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정부가 먼저 경제적 지원금을 준 뒤 같은 금액을 가해자로부터 돌려받는 것이다.

사망했거나 장애가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신체적 기능이 손상돼 1주 이상의 병원 입원과 2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상해'를 얻었다면 피해 수준별로 구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령에는 '중증 정신장애'를 얻었을 때 지원한다고 돼 있었는데 별개의 제도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과 표현이 비슷해 혼동의 우려도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원 기준을 명확히 했다. 범죄로 발생한 정신질환 때문에 1주 이상 입원해야 하고 전체적으로는 2개월 이상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기존에는 전담 기관인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위촉한 의료진의 도움을 얻는 방법이 제공되고 있었는데 개정안은 정부와 협력 관계를 맺은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을 피해자가 찾아가 치료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현정기자

교육·사회·문화 장관회의 매달 열린다

정부부처 간 소통을 통해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정책을 조정하는 관계 장관 회의가 앞으로 매달 열린다.

교육부는 10일 '교육·사회·문화 관계 장관 회의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교육·사회·문화의 주요 정책을 종합적 관점에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다.

회의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9개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한다. /조현정기자

120개 학교 신입생 0명

올해 입학식 못해…저출산에 이농 때문

입학식을 앞두고 있지만 전국 120여 개 학교는 입학식을 하지 못하게 됐다.

해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농촌 주민이 도시로 떠나면서 '신입생'이 단 1명도 없기 때문이다. 전교생이 갈수록 줄면서 전국 곳곳의 적지 않은 학교가 폐교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신입생 유치 성과없어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초등학교는 올해 졸업식뿐 아니라 입학식도 못 한다.

주민이 학생 유치를 위해 집 빌려주기 등을 벌여봤지만 '신입생 유치'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인천시 강화도 부속섬인 볼음도에 있는 서도중학교 볼음분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입생이 없다. 3학년에 진급 예정이던 학생 1명마저 전학을 가 학급 편성도 하지 않았다. 인근 주문도에 있는 서도중학교도 지난해와 같이 올해 1명만이 입학할 예정이다.

◆입학생 1명인 학교 130곳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이 1명도 없는 전국의 학교는 120여 곳이나 된다.

입학생이 '0명'인 학교는 전남 47개교, 강원 19개교, 경북 15개교, 전북 8개교 등이다. 주로 거주 인구가 적거나 경제 구조가 취약해 이농현상이 많은 농산어촌 지역 학교들이다. 대부분 초등학교이고, 90%가 본교가 아닌 분교이다.

충남 보령시에도 8개 학교가 입학생이 없어 입학식을 열지 못한다.

입학생이 달랑 '1명'인 학교도 전국에서 130여 곳이나 된다.

이처럼 신입생이 없거나 소수에 불과한 것은 낮은 출산율, 생계와 일자리를 위한 이농, 열악한 교육 여건으로 인한 이주 등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농현상 등으로 아기 울음소리 들리는 젊은 가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소규모 학교 살리기' 적극 추진

일부에서는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며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없어지고 기존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 악화된다"고 주장하는 학부모와 지역주민, 동문의 반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진보 성향의 교육감을 중심으로 일부 교육청은 작은학교 살리기, 농산어촌 학교 활성화, 거점학교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학교 되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 수가 늘어 '폐교 위기'를 극복한 학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농어촌 소규모 학교 살리기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교육청, 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구성원이 함께 나서고 지속적인 정부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우수한 교육 환경이 조성돼 교육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미세먼지 주의보 10일 미세먼지와 연무가 뒤섞여 잔뜩 흐린 가운데 관광객들이 서울 중구 남산공원 전망대에서 서울시내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

■ 대법원

<전보>◇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황진구 김동아 이제정 이태수 김지영 김현룡 김종원 박종택 정인숙 오선희 오성우 박우종 부상준 김성대 이규홍 강병훈 김범준 남성민 심담 이대연 임태혁 장일혁 차문호 윤상도 이환승 고연금 김광진 김성수 김정운 이평근 이헌숙 이흥권 전지원 함종식 권혁중 최창영 김도형

▲서울가정법원 정승원 권태형 최은주

▲서울행정법원 호제훈 김국현 김정숙

▲서울동부지법 김명한 최종두 김귀옥 문준필 오기두 김은성 안상원 박창렬 송인권 이상윤 조건주

▲서울남부지법 김익현 오재성 위현석 이은신 염기창 김춘호 김태업 박상구 김상동 남기주 최의호 박광우

▲서울북부지법 강인철 박관근 박병태 박미리 함석천

▲ 서울서부지법 이건배(수석부장) 박평균 심우용 안승호 이인규 신헌석 김행순 이영한 김형훈 이우철 황병헌

▲ 의정부지법 김성곤 성지호 박원규 강성수(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관용 박정수 이승엽 은택 허경호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고영구(지원장) 김주식 김양호

▲ 인천지법 김연학(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박범석 임병렬 김정학 김동진 오천석 오덕식 권희 김진철 박태안 박성규 금덕희 신상렬 손진홍

▲ 인천지법 부천지원 신종열 심형섭 김승정

▲ 수원지법 권순호 오민석 이미선(사법연구) 이영훈(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김상규 한병의 이종우 이성호 고일광 양철한 성보기 이승형 조미연 임재훈 이근수 이민수 이상무 안성준 조성필 박종학 심재남 최규일

■ 기획재정부

◇ 국장급 전보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소통국장 백용천

■ 여성가족부

◇국장급 승진 ▲ 대변인 박난숙

◇국장급 전보 ▲ 여성정책국장 이기순

■ 공정거래위원회

◇ 국장 승진 ▲시장구조개선정책관 박재규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배영수

◇ 과장 전보 ▲심판총괄담당관 윤수현 ▲기획재정담당관 고병희 ▲기업결합과장 선중규 ▲시장감시총괄과장 송상민 ▲서비스업감시과장 황원철 ▲기업거래정책과장 최무진 ▲제조하도급개선과장 이유태 ▲대통령비서실 파견 이숭규 ▲세종연구소 파견 조홍선

◇ 과장 승진 ▲약관심사과장 민혜영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임 ▲상임이사 권인원

■ IBK캐피탈

◇사업본부장 승진 ▲기업금융본부 함석호

◇부(팀)점장 승진 ▲대구지점 정상화 ▲경영지원팀 김세곤 ▲IB영업팀 박인식

◇부(팀)점장 전보 ▲경영전략부 권영백 ▲리스크총괄부 박재두 ▲심사부 배지훈 ▲여의도금융센터 김영건 ▲리스금융부 최항길 ▲울산지점 배찬열 ▲인천지점 장상규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무원 전보 ▲대변인 임윤주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방사선규제총괄실 박재정 ▲ 산업방사선평가실 김용재 ▲ 의료방사선평가실 이승행 ▲ 생활방사선안전실 장병욱 ▲ 법령기준실장 정재학 ▲ 경영품질팀장 박정섭 ▲ 총무팀장 박근우 ▲ 인사팀장 이지연

부고

▲ 김동선(주식회사 한실 대표)씨 별세, 김경환(DIM대표)·정은(이화여대 음대교수)씨 부친상, 이진씨 시부상, 유일석(성남지청 부장검사)씨 장인상 = 9일 충주의료원 특1호실, 발인 11일 오전 8시, 장지 충주시 산척면 선영 043-871-0444

▲ 신정우씨 별세, 안병덕(㈜코오롱 사장)·인순·인숙·정민·성혜씨 모친상, 유인건(사업)·박영일(사업)·한윤봉(교수)·정종태(회사원)씨 장모상 = 10일 오전 2시, 서울성모병원, 발인 12일 오전 6시50분. 02-2258-5940

▲ 송복치씨 별세, 이금수씨 남편상, 송국진(고려특수효과 대표)·국건(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국회씨 부친상, 한상윤(인천시 남구청 근무)씨 장인상, 양원희·류은경씨 시부상 = 10일 오전 5시 1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7호, 발인 12일 오전 8시. 02-2227-7587

▲ 이영애씨 별세, 이정훈(회사원) 정윤(우정힐스컨트리클럽 본부장) 주한(미국 거주)씨 모친상, 이태종(MilwardBrown미디어리서치 전무) 정승용(SnU피부과 원장)씨 장모상 = 9일 오후 6시 서울아산병원, 발인 12일 오전 6시30분. 02-3010-2631

▲ 이종필(전 안양초등학교 교장)씨 별세, 풍호(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응호(안양시체육회 사무국장)씨 부친상 = 10일 오전 2시 안양장례식장 8호실, 발인 12일 오전 9시 031-477-0098

‘갑질’ 막아야 하는 공정위의 ‘갑질’

기업 과징금 처분 판결 취소 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정유사들과의 담합을 이유로 현대오일뱅크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최종 취소되면서 공정위의 행정력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무리한 과징금 처분은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현대오일뱅크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재판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에쓰오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한 취지의 소송에서도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아울러 이들과 함께 공정위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는 서울고법에서 승소한 후 현재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GS는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문제는 공정위가 과도한 과징금 처분을 남발하면서 이것이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법원에 가서야 최종 처분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과징금을 무리하게 부과한다는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의 과징금은 2012년(6512억원)과 2013년(5868억원)에 소폭 감소했다가 지난해 1조원을 훌쩍 넘었다. 또 최근 10년간의 공정위 과징금 처분 중 87%가 행정소송으로 넘어갔으며 고등법원에서 공정위의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비율(금액 기준)은 2011년 2.6%에서 2013년 33.1%로 증가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우리 사회에 '갑질 논란'을 촉발시킨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초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124억원 가운데 119억원을 취소하라는 서울고법 판결을 받았다. 공정위 주장과 달리 전체 품목 구입을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이다.

또 같은 달 28일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강원)는 성동조선해양의 과징금 납부 명령과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제재가 잘못됐다고 판단,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그 지위남용 행위를 문제삼아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같은 달 알리안츠생명과 신한생명 등은 공정위를 상대로 한 변액보험 수수료 담합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처분이 정부의 갑질이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남양유업 판결 직후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정위의 행정무능을 꼬집었다.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공정위의 과징금 중 40%가 잘못 부과되는 등 행정실수가 만연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총 89건, 3573억원의 과징금 소송에서 19건, 1413억원이 취소 판결을 받았다.

무리한 과징금 처분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피해갈 수 없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조치로 기업 이미지 훼손 등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다. 늦게나마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서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처벌은 법과 규정에 따라 해야 하지만 공정위의 과도한 과징금 처분은 합리적인 판단 없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며 "처분을 받은 기업은 공정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며 기업 안팎의 여론 등으로 다소 위축되기 마련"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공정위는 현행법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유사 담합과 같은 경우는 입증 부분이 부족했고 남양유업 역시 법원의 판결 취지를 받아들인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위조 손목시계 밀수조직 검거 10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 창고에서 세관 직원들이 짝퉁 손목시계 밀수조직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세관은 중국산 저급시계 부품을 국내로 들여와 유명상표가 새겨진 부품을 조립한 뒤 이를 유통시킨 밀수조직을 검거했다. /연합뉴스

충북 제천 이어 단양서도 구제역

충북 제천시에 이어 단양군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해 비상이 걸렸다.

충북도 방역대책본부는 지난 9일 오후 7시40분께 단양군 어상천면 율곡리의 한 양돈농가에서 돼지 20마리가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돼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농장은 돼지 46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방역대책본부는 최초 의심 증상을 보인 돼지 20마리를 우선 살처분했다. 또 이 농장을 중심으로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통제초소를 설치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달 23일 보은군 양돈농가에서 구제역이 확진된 후 소강상태를 보이던 충북지역 구제역이 확대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일 제천시 금성면 사곡리의 한 농가에서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소 구제역이 발생한데 이어 인근 지역인 단양군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충북 내에서는 구제역으로 돼지 2만9000여 마리와 소 1마리가 살처분됐다. /황재용기자

‘접대 등산’ 후 사망한 의약품 업자 산재 인정

주말에 의사들과 '접대 등산'에 나섰다가 쓰러져 숨진 의약품 업자에 대해 산업 재해가 인정됐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의약품 유통회사 대표 A(51)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03년 회사를 차린 A씨는 직접 의사들을 만나 제품을 설명하고 판매해왔다. 그러던 2012년 4월 대구의 한 병원 의사들과 함께 등산에 나선 A씨는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고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의 일환으로 사건 당일에도 등산을 하게 됐고, 이런 등산이 협심증을 급격히 악화시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 발병한 것"이라며 "업무와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현정기자 jhj@

마우나리조트 1년… 대책은 ‘오리무중’

국민안전처, 재발방지대책 추진 상황 점검… 상당수 시행되지 않아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재발방지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상당수가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안전처는 마우나리조트 참사 1년을 앞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발방지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사고 후 10일 뒤인 지난해 2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안전처(당시 안전행정부·소방방재청)와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이를 추진토록 했다.

하지만 '대학생 집단연수' 지침이 보급되는 등 일부 대책만 시행에 들어갔을 뿐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다수의 대책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당시 소방방재청은 당국의 안전점검 사각지대에 있던 골프연습장과 수영장(500~5000㎡) 등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관리하도록 작년 7월 지침을 개정했다. 그렇지만 노후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 주체에게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올해 12월 31일이 돼야 시행된다.

또 국토교통부 소관인 대형 운동시설과 동·식물원의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과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도 시행까지는 1년 가까이 남은 상황이다. 안전점검 횟수를 '반기당 1회 이상'에서 '연간 3회 이상'으로 강화하는 개정 조항도 이때 함께 시행된다.

더욱이 붕괴된 체육관 건물에 쓰인 '사전제작 박판 강구조(PEB)' 등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건축법도 5개월 정도 더 기다려야 한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2월 제시한 대책은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물도 없는 실정이다. /황재용기자

경복궁서 실시된 재난대응훈련 '문화재 방재의 날'을 맞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교태전에서 재난대응훈련이 실시됐다. 사진은 훈련 중 소방헬기와 소방차가 방수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HNT 하나투어리스트

BEST SELLER

크루즈 여행

하나투어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TOP2!

고객도, 여행사도 다시찾는 이유가 있는 **베스트셀러! 하나크루즈**가 검증합니다.

Diamond Princess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PRINCESS CRUISES
escape completely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Diamond Princess)
총 톤수 : 115,875톤 / 총 탑승객 : 2,670명 / 승무원수 : 1,100명

2015년 단 2회! 부산승하선
한국/일본 크루즈 5일/6일

1,290,000부터 ▶6월 26,30일

(**현지지불**▸가이드+기사경비 포함/선상팁 포함/**선택경비** 있음)

- 부산-크루즈 4박[부산-해상-고베-해상]-부산(6/26)
- 부산-크루즈 5박[부산-가고시마-해상-도쿄-해상]-부산(6/30)

- **하나투어 전문 인솔자 동행**, 100% 출발 확정, 전 객실 발코니객실 사용
- 하나투어 단독 기항지 관광 운영, 하나크루즈 2종세트 증정(기내용 슬리퍼, 승선카드 목걸이)
- 1인 10만원 추가시 미니스위트로 업그레이드(선착순 4객실), 4명이상 예약시 미니그룹 할인

2015년 단 2회! 항공료 없이 화려한 크루즈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기회, 매일 밤 다양한 쇼와 수준높은 식사 무료 제공, 눈을 뜨면 아름다운 바다를 볼 수 있는 개별 발코니 객실 사용

스타크루즈 버고호(STAR CRUISES VIRGO)
총톤수 : 76,800톤 / 총탑승객 : 1,960명 / 승무원수 : 1,100명

3국 3색 크루즈의 매력을 한번에!
홍콩/심천/마카오 크루즈 4일

990,000부터

▶**2월 23일~5월 매주 일,월,화,수,목요일 출발**(일부제외)

(**현지지불**▸가이드+기사경비 포함/선상팁 포함/**선택경비** 있음)

- 인천-홍콩-심천(1)-[크루즈 1박]-홍콩(1)-인천

- 크루즈 1박+호텔 2박, 하나크루즈 3종 세트[기내용슬리퍼/승선카드/에코백(캐빈당)]
- 하나투어 3만 마일리지 적립혜택

지금까지와의 뻔한 패키지여행과는 격이 다른 호텔+크루즈 숙박상품을 강력 추천합니다. 크루즈에서의 황홀한 추억도 쌓으실 수 있으며 한국승무원이 상주해 있으므로 언어의 부담없이 크루즈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홍콩/마카오/심천 3개국을 한번에 관광하실 수 있는 3국 3색의 크루즈여행의 묘미를 경험하세요.

하나크루즈 눈을 뜨면 새로운 관광지로 초대합니다.

상담문의 **02)2127-1757**

■ 여행상품 가격포함 : 유류할증료(발권일/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식사요금 등 필수경비 모두 포함(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가이드/기사경비 :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하여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고) ■ 선택경비(관광) : 있음/없음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수 있음.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고 ■ [안전경보단계] ❶여행유의 ❷여행자제 ❸철수권고 ❹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www.0404.go.kr 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2015.2.6. 업데이트 기준) ■ [비자]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비자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 ■ [매너팁]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음. ■ 본 여행상품은 (주)하나투어리스트에서 판매하고 실제 여행주관은 (주)하나투어가 담당합니다. ■ (주)하나투어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 1993-000006호(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41 하나투어 빌딩/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주)하나투어리스트 : 일반여행업 등록 2002-3호(서울시 종로구청)/영업 보증보험 5억 5천만원 가입 ■ 고객칭찬/불편접수 :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9번) ■ 최소 출발인원 : 10명 기준 ■ 호텔 : 2급호텔 이상 2인 1실 사용 ■ 교통편 : 항공/버스/훼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